

2023 대구 청년의

가족돌봄청년 YOUNG CARER

으로서의 경험에 대한 실태 조사

2023 대구 청년의

가족돌봄청년 YOUNG CARER

으로서의 경험에 대한 실태 조사



I. 서론	04
1. 연구 배경	06
2. 연구 목적 및 내용	06
3. 연구 개요 및 추진 일정	06

II. 이론적 배경	08
1. 가족돌봄청년	10
2. 선행연구 분석	10
3. 국내·외 정책 동향	14

III. 연구방법	22
1. 연구대상	24
2. 설문조사 문항	24
3. 설문대상자 발굴	24
4. 설문조사 결과 분석	25

IV. 설문조사 결과	26
1. 설문 참여자의 인적사항	28
2. 전체 설문 참여자의 문항별 빈도분석 결과	32

V. 결론 및 제언	48
1. 요약	50
2. 제언	53

참고문헌	54
-------------	-----------

부록. 가족돌봄청년 대상 설문지	58
--------------------------	-----------

2023 대구 청년의

가족돌봄청년 YOUNG CARER

으로서의 경험에 대한 실태 조사

I. 서론

Young
Carer

2023 대구 청년의

가족돌봄청년 YOUNG CARER

으로서의 경험에 대한 실태 조사

II. 이론적배경

Young
Carer

II. 이론적 배경

1. 가족돌봄청년

가족돌봄청년은 영어로는 ‘Young Carer’로, 신체 혹은 정신질환이나 약물, 알코올 남용 등의 문제를 지닌 가정 내 부모님이나 남매 등의 사람을 보살피거나 그들에게 영향을 받는 사람을 의미한다. 영국의 경우, 5세에서 25세까지 가족돌봄청년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은 이들로 하여금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교육적, 경제적 부분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에 가족돌봄청년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Edinburgh Young Carers, 2023b). 국내 보건복지부(2023.4.26.: 1, 3)에서는 가족돌봄청년을 “중증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고 있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13세~34세(19~34세 청년 외에 13~18세도 대상에 포함)”로 정의하고 있다. 2023년 현재 국내의 가족돌봄청년을 1주일에 평균 21.6시간을 돌봄에 할애하며, 46.1개월간 평균적으로 가족을 돌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정의를 포함하여 가족돌봄청년을 “가족 구성원이 정신적·육체적 질환이나 상해·사고·장애 등의 사유로 보살핌이나 간병 등이 필요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 홀로 또는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지속해서 돌보는 경우 또는 정기적인 금전적 사례를 통해 타인으로 하여금 돌보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청년”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분석

가. 가족돌봄청년 현황

국내에서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연구는 과거에는 찾기가 어려웠으나 최근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몇몇 연구가 수행되었다. 먼저 정부 부처의 경우, 보건복지부(2023.4.26.)에서는 정부 최초로 2022년에 가족돌봄청년의 실태를 조사하여 발표하였다. 실태조사는 돌봄 현황, 삶의 질, 복지 욕구의 영역으로 나뉘며,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 - 1> 보건복지부(2023.4.26.: 3-8)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주요 결과

영역	주요결과	
돌봄 현황	돌봄 시간	- 주당 평균 돌봄 시간 : 21.6시간(주 돌봄자 : 32.8시간) - 주당 희망 돌봄 시간 : 14.3시간(주 돌봄자 : 19.2시간) - 주당 평균 돌봄 시간 - 주당 희망 돌봄시간 = ▽7.3시간
	돌봄 기간	- 평균 돌봄 기간 : 46.1개월(주 돌봄자 = 54.7개월) - 50% 이상이 24개월 이상 돌봄 진행 중
	돌봄 대상	- 돌봄 대상 가족 : 할머니(39.1%) > 형제·자매(25.5%) > 어머니(24.3%) > 아버지(22.0%) > 할아버지(22.0%) - 돌봄 대상자의 건강 상태 : 중증질환(25.7%) > 장애인(24.2%) > 정신질환(21.4%) > 장기요양 인정 등급(19.4%) > 치매(11.7%)
	돌봄 활동	- 가사(68.6%) > 함께 시간 보내기(63.7%) > 병원 동행·약 챙기기(52.6%) > 자기관리 돕기(39.1%) > 이동 돕기(38.4%) - 가사활동에 부담을 느끼는 정도 : 가족돌봄청년(34.4%) > 일반청년(8.5%)

삶의 질	삶의 만족도	- 삶의 불만족 정도 : 가족돌봄청년 중 주 돌봄자(32.9%) > 가족돌봄청년(22.2%) > 일반청년(10%)
	우울감	- 우울감 정도 : 가족돌봄청년 중 주 돌봄자(70.9%) > 가족돌봄청년(61.5%) > 일반청년(8.5%)
	미래계획 곤란	- 미래계획 어려움 정도 : 36.7%(주 돌봄자 : 46.8%)
복지 욕구	인지 경로	- 복지서비스 인지 경로 : 온라인 검색(42.6%) > 지인(32.7%) > 공공기관(29.9%) > 복지·종교기관(25.7%) > 학교(16.2%) > 인쇄·홍보물·언론(9.4%)
	이용 경험	- 복지 지원 이용 경험 있음 : 59.3% - 돌봄서비스 이용 경험 있음 : 52.7%
	복지 지원	- 이용 서비스 : 의료비 지원(30.0%) > 생계비 지원(27.4%) > 주거비 지원(24.1%) > 장학금 지원(23.3%) > 문화·체육활동 지원(22.8%)
	돌봄 서비스	- 이용 서비스 : 재가방문·시설이용(41.6%) > 이동지원(18.8%) > 식사지원(17.9%) > 보조기기지원(16.8%) > 가사지원(16.4%) > 돌봄가족지원(15.2%)
	돌봄 서비스 비용	- 돌봄서비스 전액 자기부담 : 8.7% - 돌봄서비스 일부 자기부담 : 26.4% - 돌봄서비스 월평균 지출 비용 : 62.3만 원
	복지 욕구	- (전체) 생계 지원(75.6%) > 의료 지원(74.0%) > 휴식 지원(71.4%) > 문화여가(69.9%)

이상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첫째, 돌봄 현황에서 가족돌봄청년은 하루 3시간씩은 돌봄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년 이상 돌봄을 수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대상자는 부모님보다는 조부모님이나 형제·자매인 경우가 높았으며, 중증질환이나 장애인인 경우가 많았다. 가족돌봄청년은 특히 가사일을 하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에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다. 둘째, 삶의 질의 경우, 일반청년 대비 가족돌봄청년의 삶의 불만족 정도와 우울감은 매우 높았으며,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미래 계획을 수립하고 대비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복지 욕구와 관련하여서는 주로 온라인이나 지인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였고, 절반 이상이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었다. 이용한 복지 서비스는 의료비, 생계비, 주거비 위주였으며, 돌봄서비스의 경우, 재가 방문 및 시설 이용 서비스가 가장 많았다. 가족돌봄청년은 최소한 일부 돌봄비용을 본인이 직접 내야 했다. 이들은 향후에 생계 지원, 의료 지원과 같은 가구의 지원을 가장 절실하게 희망하였으며, 이후 본인들의 휴식이나 여가 지원을 희망하였다.

학술연구의 경우, 가족돌봄청년의 경험에 대한 사례연구가 주요하게 이루어졌으며(선미정, 장정은, 김진영, 2022; 최윤진, 김고은, 2022; 김서영, 이재림, 2023; 권지성, 좌현숙, 최서경, 2023; 김아롱, 정익중, 2023),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현황에 대한 연구(노혜진, 2023; 김정현, 박선영, 2023)도 이루어진 바 있다. 가족돌봄청년의 사례에 대한 연구들은 크게 가족돌봄청년이 된 계기, 수행하는 역할, 어려움, 앞으로 필요한 지원에 대한 설문이나 면담을 진행하였다. 가족돌봄청년의 현황에 대한 네 가지 선행연구의 주요 연구 결과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2> 가족돌봄청년의 현황에 대한 선행연구 주요 결과

연구자	주요 주제	연구대상	주요 결과
선미정, 장정은, 김진영 (2022)	일상 생활 현황	4명 (22~29세)	· 영 케어러가 된 배경과 상황 : 1) 부족한 가족자원과 가족갈등, 2) 가족 구성원의 기능적 어려움, 3)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경제적 형편, 4) 돌봄 서비스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정보 부족
			· 영 케어러의 다양한 돌봄 역할 : 1) 간병인과 활동보조의 역할, 2) 가사노동으로 전업주부와 같은 역할, 3) 경제적 지원자의 역할
			· 동년배 청년과 다른 영 케어러의 일상 : 1) 돌봄을 감당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일, 2) 돌봄과 경제활동보다 뒷전인 학업, 3) 열심히 살아도 언제나 부족한 나를 위한 시간, 4) 돌봄에 매여 좁아진 행동반경
			· 영 케어러가 당면한 일상의 어려움 : 1)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없는 형편, 2) 끝없이 지속되는 돌봄의 부담, 3) 생활비와 병원비의 부담, 4) 돌봄으로 겪게 된 부정적 정서
최윤진, 김고은 (2022)	돌봄 경험	7명 (22~29세)	· 홀로 감내하고 허덕이며 살아감 : 1) 내 삶도 버거운데 돌봄이 온전히 나의 몫이 됨, 2) 돌봄 스트레스로 몸이 망가짐, 3) 혼자 책임져야 하는 경제적 버거움
			· 모든 게 막혀 포기하고 참아냄 : 1)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은 모두 포기해야 함, 2) 친구들을 만날 수 없는 벽이 있음, 3) 눈앞의 돌봄과 맞바꾼 나의 미래
			· 끝없는 터널에 갇힌 듯한 막막함 : 1) 평생 도태될 것 같은 두려움, 2) 언제 깨질지 모르는 열음 위를 평생 걷는 느낌, 3) 원망을 넘어 스스로 한계를 짓고 체념하게 됨
			· 극단적인 암흑 같은 감정 : 1) 돌봄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은 죄책감, 2) 내가 죽어야 돌봄이 끝날 것 같은 우울함, 3) 죽고 싶어도 가족이 신경 쓰여 죽지도 못함
			· 가까스로 의지하며 버틸 수 있는 힘 : 1) 주변 관계를 통해 돌봄을 이어 나갈 수 있음, 2) 살아 남기 위해 나의 의지를 확고히 함, 3) 미진하지만 그래도 도움이 되는 서비스
			· 감당하며 꿋꿋이 성장해 나가기 : 1) 이해심과 책임감이 강해짐, 2) 돌봄을 통해 생활 기술이 향상됨, 3) 돌봄과 관련된 직업 선택으로 이어짐, 4) 사회의 한 일원으로 평범하게 자리 잡기를 소망함
			· 잉여인력 청년에게 떠넘겨진 가족돌봄
김서영, 이재림 (2023)	돌봄 경험	7명 (21~30세)	· 가족 속 숨겨진 주 돌봄제공자
			· 너무 이른 부모 돌봄, 양가적인 조부모 돌봄
			· 돌봄을 건디게 하는 가족의 인정, 돌봄을 더 힘들게 하는 가족의 외면
			· 가족돌봄으로 청년시기를 잃어버림
			· 청년이어서 차라리 나은 가족돌봄
			· 부모에 대한 경험 : 대부분 학령기 이전에 이혼하거나 사별, 청소년기에 다시 부모가 돌아와도 별 의미가 없음
권지성, 좌현숙, 최서경 (2023)	조부모 돌봄 경험	5명 (20대 초반~후반)	· 돌봄 측면 : 조부모에 의해 길러지며, 이후에는 조부모를 돌보아야 하는 방식으로 바뀜. 청년기에는 돌봄과 독립 사이 고민을 하게 됨
			· 자신에 대한 인식 변화 : 청소년기까지는 가족돌봄이 일상의 중심이었으나 청년기부터는 독립에 대한 생각도 들
			· 가족돌봄청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환경 : 부모의 부재는 부정적 영향을 미침. 조부모가 돌봄을 수행하고, 이후에는 돌봄의 대상이 됨. 사회서비스 체계도 삶의 지원함. 일부 참여자는 자조집단을 통해 위로를 받음. 친구, 이웃 등의 사회적 관계망도 중요함.
			·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옴 : 1) 어릴 적부터 시작된 돌봄과의 사투, 2) 부정하고 싶은 처참한 현실
김아롱, 정익중 (2023)	가족 간병 경험	5명 (24~32세)	· 나 홀로 떠맡게 됨 : 1) 나 외에 감당할 사람이 없음, 2) 내 일과 맞바꾼 간병 생활
			· 벼랑 끝에 몰림 : 1) 고된 간병 생활, 2) 우울한 시간을 견뎌냄
			· 돌봄과 일상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애씀 : 1) 돌봄에 맞춰 돌아가는 내 시계, 2) 한 줄기 빛이 된 주변의 도움과 회복
			·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옴 : 1) 어릴 적부터 시작된 돌봄과의 사투, 2) 부정하고 싶은 처참한 현실

<표 II-3> 가족돌봄청년의 현황에 대한 연구 종합

나. 종합

이상의 선행연구들에 대한 범주별 결과를 선미정, 장정은, 김진영(2022)의 연구 결과의 범주를 기준으로 타 선행연구 결과로 범주를 보완하여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 표와 같다.

영역	항목	선행연구						계
		1	2	3	4	5	6	
가족돌봄청년이 된 배경	부족한 가족자원, 가족갈등	-	0	0	0	0	0	5
	가족구성원의 질병, 사고로 인한 가업 수행 불가능	-	0	0	0	0	0	5
가족돌봄청년으로서의 역할	간병인/보조 역할	0	0	0	0	0	0	6
	가사노동	0	0		0	0	0	5
	경제적 지원	0	0	0		0	0	5
가족돌봄청년으로 겪는 어려움	학업 집중의 어려움		0			0	0	3
	취업 준비 집중의 어려움	0	0		0	0	0	5
	끝없는 돌봄의 부담	0	0	0	0	0	0	6
	경제적 부담(생활비, 병원비 등)	0	0	0		0	0	5
	돌봄으로 인한 부정적 감정	0	0	0	0	0	0	6
	부족한 나만을 위한 시간	0	0	0	0	0	0	6
	본인의 건강 악화			0				1
가족돌봄청년에게 필요한 지원(제언)	돌봄서비스 지원	0				0		2
	심리지원 서비스			0	0	0	0	4
	경제적 지원(수당, 보조금)	0	0	0		0		4
	학업 및 취업 지원		0	0	0			3
	휴식 및 여가 지원	0						1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0	0	0	0	0	5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센터 및 플랫폼, 어플 개발		0			0		2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사례관리(위기 예방조치)			0	0	0	0	4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사회 인식 제고			0		0	0	3

* 1번 연구 : 보건복지부(2023.4.26.), 2번 연구 : 선미정, 장정은, 김진영(2022), 3번 연구 : 최윤진, 김고은(2022), 4번 연구 : 김서영, 이재림(2023), 5번 연구 : 권지성, 좌현숙, 최서경(2023), 6번 연구 : 김아롱, 정익중(2023)

선행연구에서 공통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돌봄청년이 된 배경에는 모든 선행연구에서 돌봄을 수행할 가족 구성원이 부족하며, 가족구성원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돌봄을 맡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족돌봄청년으로서의 역할은 간병인이나 보조 역할을 모두 수행하였으며, 가사노동 및 경제적 지원자로서의 역할도 대부분 수행해야 했다. 셋째, 가족돌봄청년으로서 겪는 어려움은 끝없는 돌봄의 부담, 부정적 감정, 부족한 나만의 시간으로 이는 모든 연구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어려움이었으며, 여러 연구에서 취업 준비에 집중하거나 경제적으로 부담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넷째, 앞으로 가족돌봄청년에게 필요한 지원으로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제언이 가장 많았으며, 심리지원 서비스, 경제적 지원, 직접 사례 발굴의 세 가지도 강조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더욱 구체적인 대구 가족돌봄청년의 현황을 설문조사를 통해 이후 분석하고자 한다.

3. 국내·외 정책 동향

본 절에서는 국내·외 가족돌봄청년 정책 현황을 고찰하고자 한다. 국내의 경우, 보건복지부, 서울, 광주 서구, 대구 서구·달서구에서 2023년도에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을 추진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해외의 경우, 과거부터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서 하고 있는 영국과 호주의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가. 국내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2023.7.12.)에서는 가족돌봄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첫째, 2023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일상의 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통합 서비스로, 2023년에는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가족돌봄청년은 질병·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청(소)년(만 13~34세)으로 정의되며, 나이 기준은 상황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다. 가족돌봄청년의 경우, 가족의 대상자로는 자녀를 제외한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친척이 있으며, 동거를 하고 있는 종이어야 한다. 특히 이 사업은 기존의 가족돌봄청년의 낮은 삶의 질과 미래에 대한 투자 기회가 부족한 점들을 해소하고, 이들의 다양한 서비스 요구(휴식, 문화여가, 심리상담, 돌봄지원 등)를 들어주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 사업은 기본 서비스와 특화 서비스로 구분되는데, 각 서비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표 II-4> 보건복지부의 2023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종류 (보건복지부, 2023.7.12.: 7-8을 재구성)

서비스		서비스 내용
[기본 서비스] 재가 돌봄 가사 서비스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의 가정을 방문해 돌봄 및 신체지원 서비스(세면, 옷입기, 식사보조 등 활동지원) 제공
	가사 지원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의 가정을 방문해 청소, 식사 준비, 설거지 등의 가사서비스 제공
	일상생활 지원	이용자의 장보기, 은행 방문 등 일상생활을 위한 외출 시 동행하여 이동 지원 및 업무보조 등 서비스 제공
[특화 서비스]	식사·영양관리	질환 등으로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맞춤형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
	병원 동행	거동이 불편한 돌봄대상가족에게 이동 및 동행 보조, 병원 접수·수납 등 지원
	심리 지원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심리지원 실시
	휴식 지원	돌봄대상가족 단기 시설보호 지원(월 최대 3일)
	간병 교육	간병·돌봄 등에 대한 교육 제공
	독립생활 지원	청년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그림 II-1]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체계도 (보건복지부, 2023.7.12.: 5)

사업 목적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국민 중심 돌봄체계 구축'		
주요 대상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국민" '23년은 ① 돌봄 필요 중장년(질병, 고립 등) ②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제공		
주요 서비스	기본 서비스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 지원 (돌봄, 가사, 동행 지원(장보기, 은행 방문 등) 서비스)	
	특화 서비스	중장년 특화 서비스	가족돌봄청년 특화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맞춤형 심리 지원 건강생활 지원 소셜 다이닝 교류 증진 지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휴식 지원(단기 보호) 맞춤형 심리 지원 간병 교육 청년 독립생활 지원
그 외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기획한 서비스 제공			

<표 II-5> 2023년 일상돌봄 서비스 선택 유형 (보건복지부, 2023.7.12.: 9)

	기본 서비스	특화 서비스
A형	36시간	1개 이용
B형	12시간	2개 이용
C형	72시간	-
D형	-	2개 이용

- * 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36시간(A형), 가사서비스가 필요한 경우는 12시간(B형) 지원
- *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 72시간의 기본서비스 제공(C형)
- * 타 공적 돌봄서비스(노인장기요양 등)를 받고 있는 경우, 특화서비스만 이용 가능(D형)
- * A~D형의 이용 유형은 최대 이용한도를 의미하므로, 개인의 선택에 따라 특화 서비스를 기존보다 적게 사용하는 것도 가능

<표 II-6> 2023년 일상돌봄 서비스 본인부담비율 (보건복지부, 2023.7.12.: 9)

기준 중위소득	기본 서비스	특화 서비스
기초수급자, 차상위	면제	5%
120% 이하	10%	20%
120% 초과~160% 이하	20%	30%
160% 초과	100%	100%

2023년에 이 사업은 국비 196억 원을 포함한 총 280억 원(보조율 70%, 서울 50% 등)이 투입되었으며, 전국 공모를 통해 다음 표와 같은 시·군·구를 선정하여 해당 지역에서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을 운영한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서비스를 앞으로도 고도화하여 2024년부터 적용대상자 및 사업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2027년에는 전국에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사업규모 ('23년)	12개 시·도 (37개 시·군·구) + 추가 지역 선정 (중장년 대상 36개 시군구, 가족돌봄청년 대상 29개 시군구 (중복 포함))
이용대상 및 본인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수준에 따른 이용대상 제한 없이 서비스 필요에 따른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 ·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화된 본인부담을 지불하고 서비스 이용
이용원칙	· 기본서비스 이용여부, 이용량 + 특화서비스 종류 선택(월 최대 2개)
제공방식	·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발급을 통한 수요자 지원방식
제공절차	이용자 발굴, 모집 > 욕구평가, 서비스 신청 > 바우처 발급 > 서비스 제공 (민간 제공기관) > 모니터링, 사후관리

<표 II-7> 2023년 가족돌봄청년 대상 일상돌봄 서비스 운영 지역(보건복지부, 2023.8.14.: 5-7)

시·도	참여 시·군·구
서울	서대문구
부산	영도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수영구
대구	서구, 달서구
인천	연수구, 부평구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전 지역)
울산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전 지역)
경기	광주시, 광명시, 남양주시, 용인시, 이천시
강원	동해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부여군, 홍성군
전북	전주시, 군산시, 남원시, 김제시
전남	영암군, 해남군
경북	안동시, 구미시, 의성군, 칠곡군, 고령군, 울진군
제주	제주시

둘째, 보건복지부(2023.9.19.)에서는 청년들이 평범한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정부가 체감도 높은 청년정책 아젠다를 제시하고, 청년들과 함께하는 젊은 대한민국을 건설하고자 2023년 9월 19일 청년 복지 5대 과제를 발표하였다. 과제는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자립준비청년, 청년마음건강, 청년자산형성의 다섯 가지 영역에서 제시되고 있으며, 본 연구의 주요 대상인 가족돌봄청년과 관련하여서는 10만 명 지원을 목표로 크게 네 가지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표 II-8> 보건복지부의 가족돌봄청년 대상 과제(보건복지부, 2023.9.19.: 5-6을 재구성)

과제	내용
돌봄 코디네이터 통한 밀착 사례관리 (2,400명 대상)	가칭 청년미래센터 내 돌봄 코디네이터(6명) 배치하여 가족돌봄청년 선제 파악 후 밀착 사례관리 : 정기면담, 긴급상황 현장 출동, 기존 자원 연계(노인장기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등)
자기돌봄비 지원 (연 200만 원, 960명 대상)	(경제적 지원) 청년 본인의 신체·정신건강 관리, 학업·취업 준비, 자기개발 등을 위한 자기돌봄비 연 200만 원 지원 신설(소득기준 有)
자조모임 등 프로그램 지원 (월 1회, 2,400명 대상)	(정서적 지원) 돌봄 경험 공유 등 자조 모임 프로그램 운영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23. 51개 시군구 → '24. 90개 시군구)	(서비스 지원) 필요에 따라 돌봄·가사·심리지원·식사·영양관리·돌봄교육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실시('23.8월~)

첫 번째 사례에서 살펴본 일상 돌봄 서비스는 이번 과제 중 하나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네 가지 과제 외에 전 기관과 인력을 통해 가족돌봄청년 확인-지원-관리에 이르는 원스톱 통합서비스도 제공하고자 하며, 24년부터 4개 시·도에 시범 사업한 뒤, 26년에 전국에 확대시킬 예정이다. 끝으로 주요 과제의 향후 추진 일정은 다음과 같다.

<표 II-9> 가족돌봄청년 과제 향후 추진 일정(보건복지부, 2023.9.19.: 11)

주요 내용	'23. 3분기	'23. 4분기	'24. 1분기	'24. 2분기	'24. 3분기	'24. 4분기
	전담 전담체계 구축					
원스톱 통합 지원 시범사업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실시						

나. 국내 지자체 정부

현재 각 시·도에서도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여러 정책들을 수립하여 운영 중에 있다. 이하에서는 대표적인 지역들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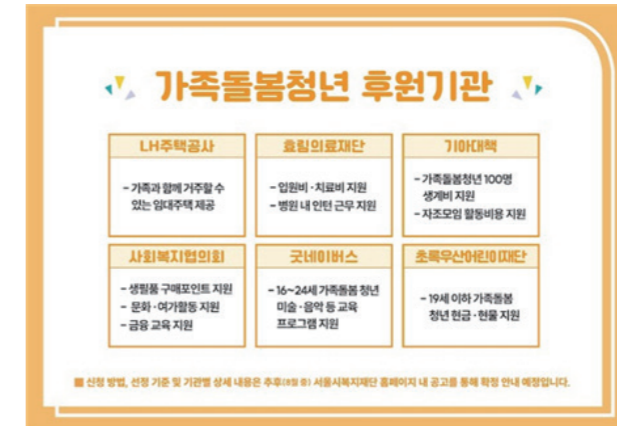
1) 서울

서울시에서는 가족돌봄청년을 “장애, 신체 및 정신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고 있는 14세~34세 이하의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이하의 다섯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가족돌봄청년으로 공식 인정받을 수 있다(서울복지포털, 2023).

- 대상자의 나이가 만 14세~34세 이하에 해당하는가?
- 대상자가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가?
- 돌봄대상자가 민법상 가족(조부, 조모, 부, 모, 형제자매, 배우자 등)에 해당하는가?
- 돌봄대상자가 장애, 정신·신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가?
- 대상자가 가족 돌봄을 행하고 있는가? (대상자가 가족돌봄(가사, 간병 등)을 직접 행하고 있는가? 대상자가 해당 가정 생계를 책임(전부 또는 일부)지고 있는가?)

이에 해당하는 가족돌봄청년은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전담 기구에 개인적으로 연락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개인별 맞춤 상담이나 지원 가능 정책을 안내하여 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시내 후원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청년들이 재정적, 문화적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림 II-2]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후원기관 자원 (서울시복지재단, 2023)



이러한 지원들은 서울특별시(2023.7.18.)에서 2023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조례에서는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정의와, 시장의 책무, 돌봄청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실태 조사, 지원사업, 민간전문가 활용,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중복지원의 제한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서울시에서도 이상의 정책 현황 이외에 보다 구체적인 정책 현황은 아직 확인할 수 없지만, 조례상에 나타나는 지원의 유형으로 다음을 확인할 수 있다.

1. 가족돌봄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2.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주거와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3.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정서 지원사업
4.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교육 지원사업
5.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
6.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문화·체육활동 지원사업
7.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
8. 가족돌봄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2) 광주 서구

광주에서는 서구청에서 주도적으로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 운영하고 있다. 광주 서구청에서는 가족돌봄청년을 최초로 “만 13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중 가족돌봄이 필요한 청년으로 돌봄대상자가 광주 서구에 거주하는 자”로 정의하였다. 특히 이러한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일 때 우선순위로 배정된다. 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2023년 3월 돌봄지원사 파견(일상생활 지원, 가사 지원, 식사 지원, 목욕돌봄, 만성질환 돌봄, 장애가족 돌봄) 사업 신청을 받아 월 16시간까지 돌봄지원사를 지원하였으며, 청년들의 자립과 성장에 필요한 배움과 심을 제공하는 ‘내일희망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여행비 혹은 교육비로 50만 원을 지원하였다(광주서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3.3.15.).

이후 2023년 7월 15일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를 제정 및 시행하였다. 이 조례에서는 가족돌봄청년을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란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약물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함으로써, 초기에 비해 범위에 해당하는 연령을 13세에서 9세로 낮추었다. 이를 바탕으로 책무, 시행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지원사업, 위원회, 업무 등의 위탁, 중복지원의 제한, 환수 조치, 비밀 유지의 의무에 대한 조항을 마련하였다. 지원사업은 다음으로, 서울시와 거의 비슷하다.

1.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2.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정서 지원사업
3.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교육 및 취업 지원사업
4.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문화·체육활동 지원사업
5.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수당 지원사업
6.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
7. 가족돌봄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8. 그 밖에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향후 보다 세밀한 지원을 위해 2023년 8월 16일에서 9월 12일까지 서구 가족돌봄청(소)년(9~39세)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통해 규모와 현황을 파악하기도 하였다(서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3.8.24.). 2024년부터는 가족돌봄청(소)년에게 1인당 매월 30만 원씩 12개월간 지원할 예정이며, 노무, 법률, 세무, 경제금융 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도 고도화할 예정이다. 향후 가족돌봄청년 정책 추진을 위한 예산안과 대상자 수에 대한 계획은 다음과 같다(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실, 2023).

단위사업명		2022~2023	2024	2025	2026	
가족돌봄청년지원		사회적 인식변화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성	지원 네트워크 확대	온라인플랫폼 구성 및 운영	거점센터 운영 등	
투자 계획 (백만 원)	계	2,700	460	532	640	720
	구비	2,400	360(0)	432	540	720
	민자/기타	300	100(100)	100	100	-
대상자 수(명)		100	120	150	200	

3) 대구 서구·달서구

대구 서구와 달서구는 2023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인 ‘2023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¹⁾’에 선정되어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인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에게 재가 돌봄, 가사 서비스와 함께 심리·정서 지원, 교류 증진 등의 개인 대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국비 1억 3,700만 원의 지원을 통해 기본 서비스인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와 특화 서비스를 제

1)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의 주요 과제로 추진되는 것으로, 질병이나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40~64세)과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거나 이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족돌봄청년(13~34세)에게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사업(대구광역시, 2023.8.16.)

공한다(대구광역시, 2023.8.16.). 서비스별 추진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II-11> 대구 서구·달서구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현황(대구광역시 서구, 2023.9.1.)

서비스	서비스 내용		
[기본] 재가돌봄 가사 서비스	· 요양보호사 등이 이용자가정을 방문해 일상과 가사를 돌보는 서비스 제공 · 재가돌봄 : 신체청결, 식사도움 등 건강수발 지원 · 가사 : 청소, 설거지, 식사준비, 세탁 등 지원 · 일상지원 : 장보기, 은행방문 등 외출시 동행보조		
	구분	바우처 총액	이용방법(예시)
	[A형] 월 36시간 이용	636,000원	하루 3시간 X 12일 이용
	[B형] 가사도움만 원할 경우	192,000원	하루 1시간 X 단가 16,000원 X 12일 이용
[C형] 월 72시간 이용	1,272,000원	하루 3시간 X 24일 이용	
[선택] 특화 서비스	· 식사영양관리 :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울 분에게 맞춤형식사 지원 · 병원동행 : 이동, 병원 접수·수납 등 도움 · 심리지원 : 맞춤형 심리상담 제공 · 교류증진 지원 : 지역주민과의 만남 및 소통 도움 · 간병교육 : 가족돌봄청년에게 질병에 대한 이해, 이용 가능한 정책 교육 실시		

가족돌봄청년의 경우, 이 서비스의 신청 자격 대상자는 소득 기준과 관련 없이 13~39세며, 가족을 간병하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족돌봄청년이면 된다. 신청은 연중 상시 접수로, 본인뿐만 아니라 친족, 이해 관계인, 담당 공무원 등이 대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대구광역시 서구, 2023.9.1.).

다. 영국 - 에든버러(Edinburgh) 영 케어러

영국의 에든버러 영 케어러(Edinburgh Young Carers)는 자선단체이나 보충회사로 1994년에 지역사회 개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설립되었다. 이 기관은 현재 영국 스코틀랜드 지역 내 가장 규모가 크고 잘 운영되는 기관 중 하나로, 가족돌봄청년에게 많은 지원과 협력을 하고 있으며, 사업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지원사업 및 활동	내용
가족돌봄청년 그룹	가족돌봄청년 간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고 함께 시간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구조화된 활동, 토론, 지원을 제공(친구 사귀기, 영화 감상, 3D 프린팅 수업 등 단체활동)
가족돌봄청년 개인 지원	전담 개발 직원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 제공(특히 그룹 활동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숙박형 일일 여행	평일 혹은 주말 기간동안 집을 떠나 일일 여행을 함으로써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휴식하고 즐기는 기회 제공
정보 및 지원	가족돌봄청년과 가족이 지역의 다른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에 맞는 정보를 안내
가족돌봄청년 포럼	12세 이상의 가족돌봄청년의 권리를 소리낼 수 있는 기회 제공
학교 인식	학교에 가족돌봄청년의 책임과 지원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는 프로젝트 수행
일반적인 인식 제고	지역 및 전국적으로 가족돌봄청년을 대변하여 캠페인 활동 실시
약물, 알코올 서비스	약물, 알코올 남용으로 인한 문제를 겪는 가정을 둔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전문가팀이 여러 서비스를 지원(읽기, 수영, 자전거 타기, 요리 관련 수업 제공, 의류, 사회적·경제적 지원)
상담	가족돌봄청년 대상 익명의 정신상담 제공

가족 돌봄으로 인해 학습이나 타인과 어울리는 기회가 부족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에든버러 영 케어러에서는 주로 사교 기회, 교육, 상담 기회 등을 주요하게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2> 영국 에든버러 영 케어러(Edinburgh Young Carers, 2023a)의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라. 호주

호주에서는 정부 차원 및 각 주 정부 차원에서 돌봄 청년을 위한 여러 지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과, 여러 주 중 대표적인 주인 빅토리아 주(Victoria)의 지원 현황을 본 절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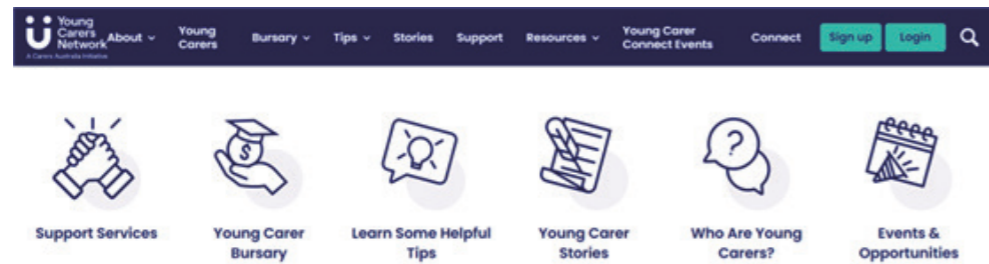
1) 호주 정부

호주 정부에서는 돌봄청년을 장애, 신체·정신질환, 의존, 노화가 있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대가를 받지 않는 돌봄이나 지원을 25세까지의 청년으로 정의하고 있다. 호주 정부에서 돌봄 청년을 가족으로 한정하지 않고 친구와 같은 지인까지 확장하여 범위를 설정한 점은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다. 이들은 주로 가사노동, 대금 납부, 개인적인 돌봄, 치료 제공, 정서 지원을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 호주 내에 약 23만 5천여 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Young Carers Network, 2023). 이러한 돌봄 청년을 위해 호주 정부(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에서는 돌봄 청년 네트워크(Young Carers Network) 사이트를 구축하였으며, 사이트를 통해 청년들은 다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지원 서비스 검색
- 도움 되는 정보 학습 및 공유
- 다른 돌봄청년들의 이야기 읽기 및 공유
- 돌봄청년을 위한 여러 행사 검색
- 재정지원 정보 검색
- 돌봄청년에 대한 추가 정보 검색
- 돌봄청년 네트워크 가입
- 돌봄청년 장학금 프로그램(Bursary Program) 신청
- 다른 돌봄청년들의 후기 읽기 및 공유

이 사이트에서는 청년들이 속한 주의 지원 정책들도 확인할 수 있으며, 보다 맞춤형의 지원은 주 정부를 통해 받을 수 있다.

[그림 II-3] 호주 Young Carers Network (2023) 사이트 화면



2) 빅토리아(Victoria)주 교육부

호주 빅토리아 주 교육부에서는 가족돌봄청년(young carer)을 정신 질환, 신체 질환, 장애, 만성질환, 노인, 중독인 가족 구성원에게 돌봄, 보조, 지원을 제공하거나 해야 하는 25세 미만의 청년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청년들을 보조하기 위해 청년이 학교에 다닐 시에는 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The Department of Education, Victoria, 2021).

- CASES21²⁾에 해당 학생을 가족돌봄청년으로 기록
- 학생 및 학부모에게 가족돌봄청년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알리면서 이를 통해 여러 필요한 지원을 해줄 것을 보장
- 학생지원그룹(Student Support Group) 운영

2) CASES21 포털(Portal)은 호주 빅토리아 주에 속한 학교들이 학생들을 관리하고 학교의 행정 절차들을 처리하기 위한 기록을 하는 필수 시스템 포털이다(The Department of Education, Victoria, 2021). 우리나라 나이스(NEIS)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이트라 할 수 있다.

- 돌봄의 책임을 수행해야 하는 청년들의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 학교 내에서 적절한 조치
- 학생 및 가구에 해당 학생의 요구에 응할 수 있는 적절한 외부의 지원을 안내
- 학교 내 교직원으로 하여금 가족돌봄청년의 상황을 인식시켜 후속 지원을 하도록 조치

가족돌봄청년은 학교 이외에도 주 정부에서 마련한 돌봄자 플랫폼(Carers Victoria, www.carersvictoria.org.au)이나 국가 플랫폼을 통해 여러 지원 정책을 확인할 수 있으며, 빅토리아 주에서 마련한 여러 돌봄자 법안(the Carers Recognition Act 2012 (the Act), the Mental Health Act 2014, the Carers Recognition Act 2010)을 통해 돌봄자로 공식 인정되어 그에 따른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마. 종합

국내·외에서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추진된 정책들을 종합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II-13> 가족돌봄청년 정책 국내·외 현황

항목	보건 복지부	서울	광주 서구	대구 서구·달서구	영국 에든버러	호주	계
돌봄서비스 지원	○ (돌봄, 가사, 일상생활)		○ (돌봄, 가사, 일상생활)	○ (돌봄, 가사, 일상생활)		○	4
심리지원 서비스	○			○	○	○	4
경제적 지원(수당, 보조금)	○	○	○			○	4
주택 지원		○					1
학업 및 취업 지원						○	1
휴식 및 여가 지원	○	○	○		○	○	5
별도 교육 제공	○	○	○	○	○	○	6
모임 지원	○	○	○	○	○	○	6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센터 및 플랫폼, 어플 개발	○	○	○		○	○	5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사례 관리 (위기 예방조치)	○		○		○	○	4
법률(조례) 마련	○	○	○			○	4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사회 인식 제고			○		○	○	3

전반적으로 가족돌봄청년을 위해 실생활이나 돌봄에 필요한 추가 교육이나 자조모임 등의 공동체 형성 지원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 외에 휴식 및 여가 지원,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자체 플랫폼 제작도 많이 이루어진 상태이다. 또한 돌봄 및 심리 지원, 사례관리 및 조례 마련 등도 여러 지자체와 국가에서 추진되어 왔다. 반면, 주택 지원 및 학업 및 취업 지원은 소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동향을 통해 향후 국내에서도 이상의 지역 이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돌봄청년을 위한 정책이 널리 적용될 필요가 있으며,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정책들을 향후 추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023 대구 청년의

가족돌봄청년 YOUNG CARER

으로서의 경험에 대한 실태 조사

III. 연구방법

Young
Carer

I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대구권역에 거주 중인 19세~39세의 가족돌봄³⁾ 이력이 있거나 돌봄 중인 청년이다. 설문 문항에 거주지와 돌봄 경험 유무를 제일 먼저 조사하여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설문 참여할 수 없도록 설정하였다. 본 조사는 대구광역시청년센터에서 직접 청년을 대상으로 설문 응답을 받았으며 이러한 조사의 특성상 청년센터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청년들에게 설문지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발송하는 비중이 다소 높았다.

2. 설문조사 문항

가족돌봄청년의 경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23년 5월부터 8월까지 설문지를 작성 및 작업하였다. 설문지 제작에 앞서 가족돌봄청년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 동향을 분석하여 설문 문항을 제작하였다. 작업한 설문지 초안은 2023년 5월에 관련 전문가 3인에게 1회씩 각각 일대일로 1시간 내외 동안 자문을 받았으며, 이후 자문 결과를 반영하여 설문지를 보완하였다. 보완한 설문지로 다시 한번 전문가 자문을 받았으며, 최종적으로 8월에 설문문항을 확정하였다. 본 설문지의 주요 문항은 다음 표와 같다.

* 복수 응답 문항

<표 III-1> 설문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대상자 선정	대구 거주 여부(군위군 포함), 가족 돌봄 경험 여부, 19세~39세 여부
돌봄의 형태와 방식	도움이 필요한 가구원*, 가구원의 건강상태*, 돌봄의 주요 책임자*, 주당 평균 돌봄 시간, 돌봄 기간, 돌봄에서의 역할*, 본인 및 가구의 돌봄 지출 비용, 본인 및 가구의 경제활동 회복 수준, 돌봄에서 느꼈던 어려움(경제적, 돌봄, 삶의 질 측면), 돌봄 시 느낀 감정
돌봄 및 복지서비스 경험과 수요	돌봄 및 복지서비스 이용 여부, 미이용 이유, 정보 습득 경로*, 돌봄서비스 인지도, 돌봄서비스 이용 경험 및 만족도, 복지지원서비스 인지도, 복지지원서비스 경험 및 만족도, 돌봄 및 복지서비스 정보 습득의 난이도, 돌봄 및 복지서비스 정보 습득이 어려운 이유, 경제 및 돌봄 측면에서 필요한 정책 우선순위, 삶의 질적 측면에서 필요한 정책 우선순위
청년정책 경험	대구광역시청년센터 인지 여부 및 경로, 대구시 청년정책 인지도, 대구시 청년정책 이용 경험 및 만족도
기본정보	성별, 출생년도, 최종 학력, 현 경제활동 상태, 현 근로 형태, 거주지역, 동거 가족 구성원*, 가구 내 돌봄 역할자의 수, 주거 형태, 월 소득

3. 설문대상자 발굴

대상자 발굴과 관련하여, 선행연구를 검토해 본 결과 가족돌봄상황에 처한 청년의 발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다. 본 연구의 취지는 가족돌봄청년에게 필요한 청년정책 발굴과 모색에 있었으므로 연구 대상은 가족돌봄상황이 종료되었더라도 가족돌봄 경험이 있는 청년으로 확대하여 조사하였다.

가족돌봄의 경험이 있는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 2022년과 2023년 대구광역시청년센터에서 상담을 받았거나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 2,300여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또한 가족돌봄청년이 병원을 이용하고 있을 확률이 높을 거라 판단하여 대구 내 대학병원과 대형병원에 설문홍보물 게

3) 가족 구성원이 정신적·육체적 질환이나 상해·사고·장애 등의 사유로 보살핌이나 간병 등이 필요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 홀로 또는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돌보는 경우 또는 정기적인 금전 지원을 통해 타인으로 하여금 돌보게 하는 등의 행위

<표 III-2> 설문조사 설계 개요

구분	내용
조사 대상	대구에 거주하는 19세~39세 가족돌봄경험이 있는 청년
조사 협조	경북대학교 병원 수성구청 사례관리팀(가족 돌봄 지원 '행복수성 케어(Care)' 사업 운영팀) 월성종합사회복지관(신복지사각지대지원사업 운영기관)
조사 인원	전체 : 812명 중 최종 154명 - 온라인 : 설문 응답자 567명 중 가족돌봄경험있는 청년 153명 - 오프라인 : 설문 응답자 245명 중 가족돌봄경험있는 청년 18명 - 대상자 데이터클리닝 : 온라인 153명, 오프라인 1명, 총 154명
조사 도구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설문조사
조사 방법	온라인 설문조사(자기기입식) 오프라인 설문조사(자기기입식)
조사 기간	2023년 8월 9일 ~ 9월 17일
통계분석	SPS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한 통계분석
조사 및 분석	조사 : 대구광역시청년센터 분석 : 이지은 (경북대학교 교육학 박사)

4. 설문조사 결과 분석

본 설문조사의 결과는 Excel 및 SPSS 18.0을 활용하여 기본적으로 빈도분석과 가중치분석을 통해 각 문항별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후, 인적 사항을 기반으로 한 집단별 차이 검정을 위해 검정이 가능한 문항을 대상으로 카이제곱검정, 일원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다만 응답자의 대다수가 한 응답에 쏠려 있거나 집단의 수가 한 자릿수인 경우, 통계적으로 분석이 어려워 집단 비교에서 제외시켰다. 본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비교한 집단은 다음과 같다. 일부 집단은 비교를 위해 기존의 세분화된 집단을 적은 범주로 통합시켰다.

<표 III-3> 집단 비교 대상

구분	내용
돌봄기간	1. 1년 미만, 2. 1년 이상~3년 미만, 3. 3년 이상
노동 및 금전 지원 정도	1. 미지출, 2. 30만 원 미만, 3. 30만 원 이상
출생연도	1. 1984~1988년생, 2. 1989~1993년생, 3. 1994~1998년생, 4. 1999~2002년생
대상자 월 소득	1. 50만 원 미만, 2. 50만 원 이상~100만 원 미만, 3. 10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 4. 200만 원 이상

2023 대구 청년의

가족돌봄청년 YOUNG CARER

으로서의 경험에 대한 실태 조사

IV. 설문조사 결과

Young
Carer

IV. 설문조사 결과

본 장에서는 유효한 전체 설문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문항별 응답 결과와 집단 비교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빈도분석 및 차이검정 결과에서 각 칸은 빈도(%)를 나타낸다.

1. 설문 참여자의 인적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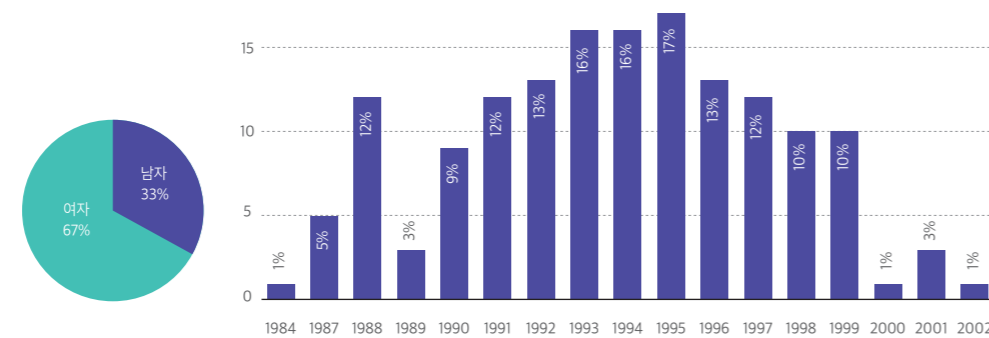
본 조사에 유효한 응답을 한 설문 참여자는 총 154명이다. 각 문항은 154명을 기준으로 하며, 복수응답 허용 및 선택 문항의 경우, 해당 문항(*)의 설문 인원을 별도로 표기하였다. 설문 참여자의 기본적인 인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IV-1> 설문 참여자의 성별 및 출생연도

성별	빈도(%)
남	51(33.1)
여	103(6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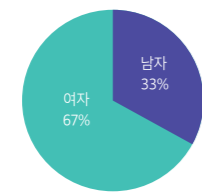
출생연도(5년)	빈도(%)	출생연도(5년)	빈도(%)
1984~1988	18(11.7)	1994~1998	68(44.2)
1989~1993	53(34.4)	1999~2002	15(9.7)

출생연도	빈도(%)	출생연도	빈도(%)
1984	1(0.6)	1995	17(11)
1987	5(3.2)	1996	13(8.4)
1988	12(7.8)	1997	12(7.8)
1989	3(1.9)	1998	10(6.5)
1990	9(5.8)	1999	10(6.5)
1991	12(7.8)	2000	1(0.6)
1992	13(8.4)	2001	3(1.9)
1993	16(10.4)	2002	1(0.6)
1994	16(10.4)		



<설문 출생연도(빈도)>

<설문 참여자의 성별(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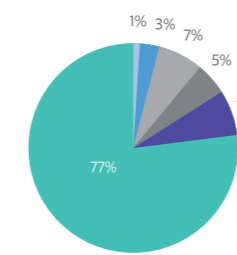


<표 IV-2> 설문 참여자의 최종 학력, 경제활동 및 근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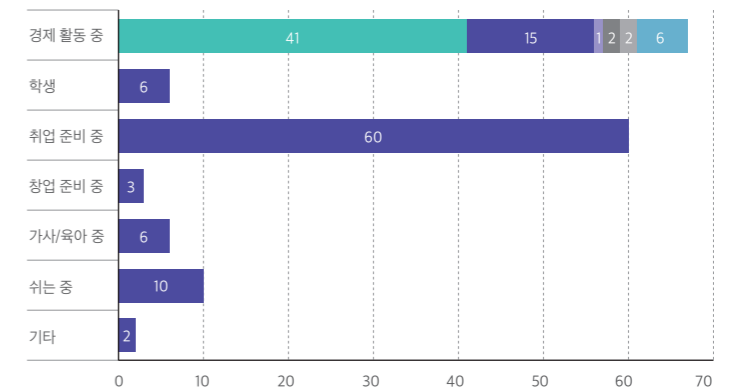
최종학력	빈도(%)
고졸 이하	10(6.5)
대학 재학 중	7(4.5)
대학 중퇴	11(7.1)
(초)대학 졸업	119(77.3)
대학원 재학 중	2(1.3)
대학원 졸업 (석·박사)	5(3.2)

현 경제활동 상태	빈도(%)
경제 활동 중	67(43.5)
학생	6(3.9)
취업 준비 중	60(39)
창업 준비 중	3(1.9)
가사/육아 중	6(3.9)
구직활동 없이 쉬는 중	10(6.5)
기타(가끔 알바, 프리랜서)	2(1.3)

현 근로 형태*	빈도(%)
상용근로자	41(61.2)
임시근로자	15(22.4)
일용근로자	1(1.5)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고용주)	2(3)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2(3)
무급가족종사자	0(0)
기타 종사자	6(9)
계	67(100)



<설문 참여자의 최종 학력(비율)>



<설문 참여자의 경제활동 현황(빈도)>

설문 참여자의 최종학력의 경우, 대다수가 전문대학 혹은 일반대학 졸업자였다(77.3%). 현 경제활동 상태의 경우, 경제 활동 중인 자가 전체의 43.5%로 가장 많았으며, 취업 준비 중인 자 또한 비슷한 비율로 다음을 차지하였다(39%). 한편, 경제 활동 중인 자의 경우, 1년 이상의 근로기간을 보장받은 상용근로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60.3%).

<표 IV-3> 설문 참여자의 거주지역, 가족구성원, 돌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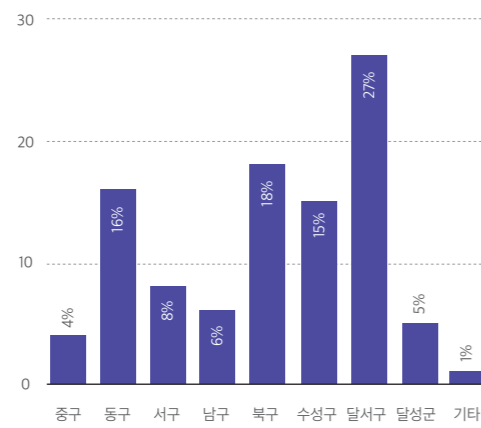
거주지역	빈도(%)
중구	6(3.9)
동구	24(15.6)
서구	13(8.4)
남구	10(6.5)
북구	27(17.5)
수성구	23(14.9)
달서구	42(27.3)
달성군	8(5.2)
군위군	0(0)
기타(경북)	1(0.6)

동거 중인 가족 구성원*	빈도(%)
없음(1인가구)	39(13.1)
부	68(22.9)
모	89(30)
조모	9(3)
조부	4(1.3)
형제·자매	65(21.9)
배우자	11(3.7)
배우자의 부모	2(0.7)
배우자의 조부모	0(0)
배우자의 형제자매	0(0)
자녀	9(3)
기타(동거인)	1(0.3)
계	297(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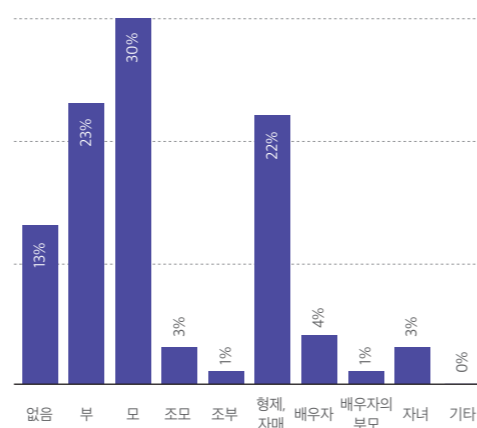
돌봄 현황	빈도(%)
현재는 돌봄 종료	121(78.6)
현재 돌봄 중	33(21.4)

돌봄역할을 하는 기타 가족구성원 수 ⁽¹⁾	빈도(%)
본인 제외 n명	97(63)
없음	57(37)

돌봄역할을 하는 기타 가족구성원 수 ^{(2)*}	빈도(%)
1명	45(46.4)
2명	30(30.9)
3명	16(16.5)
4명	6(6.2)
계	97(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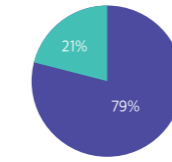


<설문 참여자의 거주 지역(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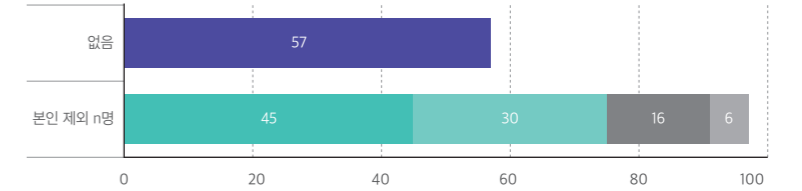
<설문 참여자의 동거 중인 가족 구성원 현황(비율)>

설문 참여자의 거주지역의 경우, 달서구 거주자가 가장 많았으며(27.3%), 북구(17.5%), 동구(15.6%), 수성구(14.9%)가 뒤를 이었다. 설문 참여자들의 현 동거 가족구성원은 모(30%), 부(22.9%), 형제·자매(21.9%) 순으로 높은 비중을 보여 주었다.



■ 현재 돌봄 중 ■ 현재 돌봄 종료

<설문 참여자의 돌봄 현황(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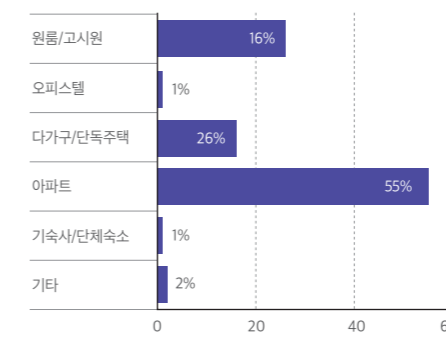
<설문 참여자 가구의 돌봄 역할을 하는 구성원 수(빈도)>

한편, 설문 참여자들은 대다수가 현재는 돌봄이 종료된 상태였으며(78.6%), 돌봄 중인 자는 33명(21.4%)이었다. 이들 중 본인 외에 돌봄을 수행하는 자가 있는 경우가 절반 이상으로(63%), 본인 이외에 1명인 경우가 약 절반 가까이(46.4%), 2명인 경우가 그다음을 차지하였다(3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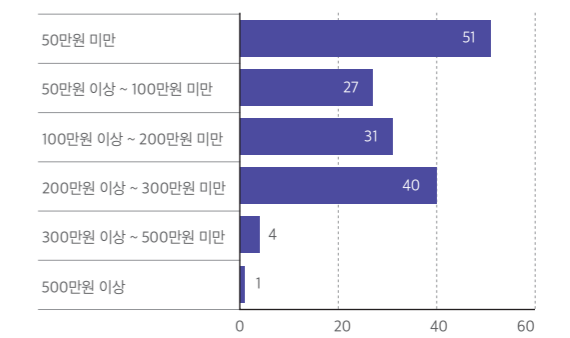
<표 IV-4> 설문 참여자의 주거 형태 및 월 소득

주거형태	빈도(%)
원룸/고시원	24(15.6)
오피스텔	2(1.3)
다가구/단독주택	40(26)
아파트	84(54.5)
기숙사/단체숙소	1(0.6)
기타(빌라, 원룸, 전세)	3(1.9)

월 소득(용돈 포함)	빈도(%)
50만원 미만	51(33.1)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27(17.5)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31(20.1)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40(26)
3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4(2.6)
500만원 이상	1(0.6)



<설문 참여자의 주거 형태(비율)>



<설문 참여자의 월 소득(빈도)>

설문 참여자의 현 주거 형태의 경우, 아파트에 거주하는 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54.5%), 그다음으로는 다가구나 단독주택에 사는 비율이 높았다(26%). 참여자들의 월 소득의 경우, 50만 원 미만인 경우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33.1%), 200만 원 이상에서 300만 원 미만의 소득이 있는 자가 그다음을 차지하였다(26%).

2. 전체 설문 참여자의 문항별 빈도분석 결과

전체 설문 참여자를 대상으로 돌봄의 형태와 방식, 돌봄 및 복지서비스 경험과 수요, 청년정책 경험의 영역에 대한 문항별 빈도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돌봄의 형태와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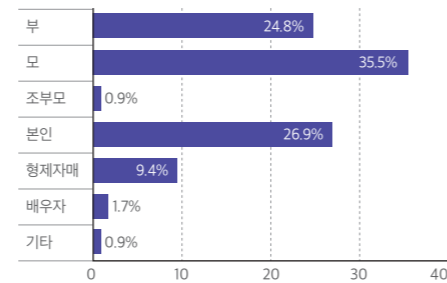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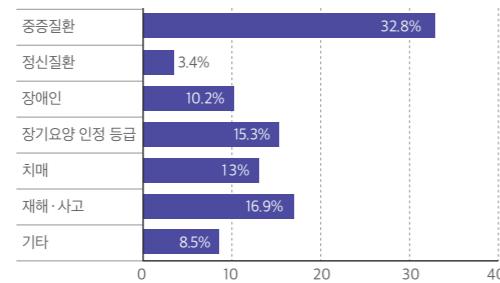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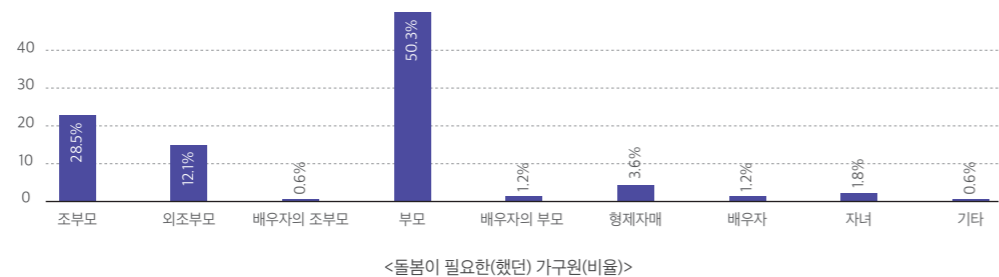
<표 IV-5> 돌봄이 필요한(했던) 가구원 및 건강 상태, 돌봄의 주요 책임자 빈도 분석 결과

돌봄이 필요한(했던) 가구원*	빈도(%)	돌봄이 필요한(했던) 가구원*	빈도(%)
1. 조부모	47(28.5)	7. 형제자매	6(3.6)
2. 외조부모	20(12.1)	8. 배우자	2(1.2)
3. 배우자의 조부모	1(0.6)	9. 배우자의 형제자매	0(0)
4. 배우자의 외조부모	0(0)	10. 자녀	3(1.8)
5. 부모	83(50.3)	11. 기타(삼촌)	1(0.6)
6. 배우자의 부모	2(1.2)	계	165(100)

돌봄이 필요한(했던) 가구원의 건강 상태*	빈도(%)
1. 중증질환	58(32.8)
2. 정신질환	6(3.4)
3. 장애인	18(10.2)
4. 장기요양 인정 등급	27(15.3)
5. 치매	23(13)
6. 재해·사고	30(16.9)
7. 기타	15(8.5)
계	177(100)

돌봄 주요 책임자*	빈도(%)
1. 부	58(24.8)
2. 모	83(35.5)
3. 조부모	2(0.9)
4. 본인	63(26.9)
5. 형제자매	22(9.4)
6. 배우자	4(1.7)
7. 기타	2(0.9)
계	234(100)

7. 기타 : 거동 불편, 경증, 기억장애(중증 건망증), 노화로 인한 돌봄, 뇌출혈, 당뇨병, 머리수술, 심장수술, 암, 암 요양, 이상없음, 질병으로 인한 수술, 코로나, 코로나 합병증 장기화, 허리, 무릎 수술



돌봄이 필요한(했던) 가구원과 그들의 건강 상태 및 돌봄 책임자에 대한 설문은 중복응답을 허용하도록 진행되었으며, 분석 결과 돌봄이 필요한(했던) 가구원의 경우, 부모님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50.3%), 다음으로 조부모(28.5%),

외조부모(12.1%)순의 높은 빈도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돌봄 대상 가구원은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32.8%), 그다음으로 재해 및 사고로 인한 질환을 겪고 있는 경우(16.9%)와 장기 요양 인정 등급을 받은 경우(15.3%)가 많았다. 이들에 대한 주요 돌봄 책임자는 어머니의 경우가 가장 비율이 높았으며(35.5%), 그다음이 설문 참여자 본인인 경우(26.9%)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부모(24.8%), 형제자매(9.4%)가 뒤를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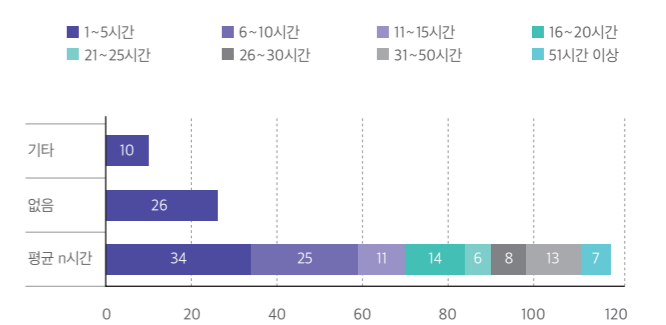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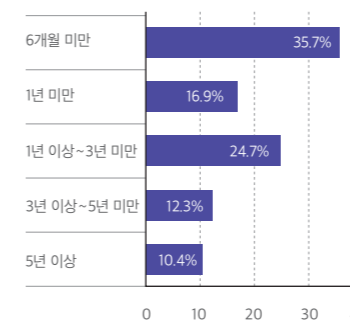
<표 IV-6> 본인의 주당 가족 돌봄 시간 및 총 기간 빈도분석 결과

본인의 가족 돌봄 총 기간	빈도(%)
1. 6개월 미만	55(35.7)
2. 1년 미만	26(16.9)
3. 1년 이상~3년 미만	38(24.7)
4. 3년 이상~5년 미만	19(12.3)
5. 5년 이상	16(10.4)

본인의 주당 가족 돌봄 시간	빈도(%)
1. 평균 n시간	118(76.6)
2. 없음(간헐인 또는 다른 가족이 돌봄)	26(16.9)
3. 기타	10(6.5)

3. 기타 : 거의 종일, 때때로, 매일, 모름, 요양원, 일주일 내내(어머니와 본인 2인 가정이었음), 주말 가끔, 평일(12시간이상), 주말(24시간), 하루종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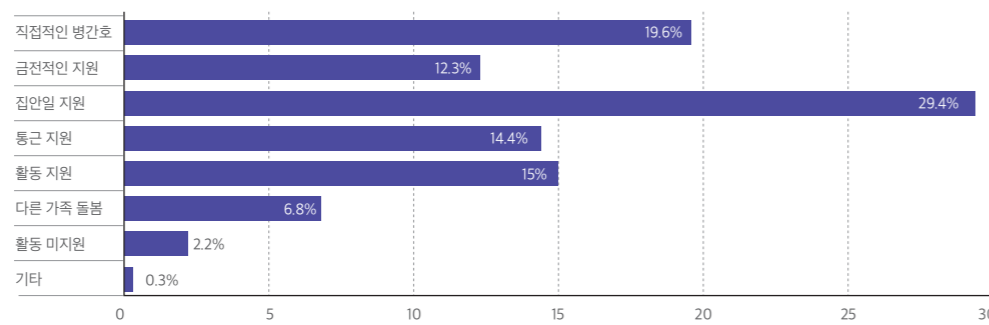
돌봄 시간	빈도(%)	돌봄 시간	빈도(%)
1	2(1.7)	21	1(0.8)
2	5(4.2)	24	4(3.4)
3	6(5.1)	25	1(0.8)
4	13(11)	30	8(6.8)
5	8(6.8)	35	1(0.8)
6	5(4.2)	40	8(6.8)
7	6(5.1)	42	2(1.7)
8	5(4.2)	48	2(1.7)
9	1(0.8)	80	1(0.8)
10	8(6.8)	84	1(0.8)
12	3(2.5)	105	1(0.8)
14	5(4.2)	120	3(2.5)
15	3(2.5)	150	1(0.8)
20	14(11.9)	계	118(100)



설문 참여자의 주당 가족 돌봄 시간과 관련하여 대다수(76.6%)가 매주 일정 시간을 돌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돌봄 시간은 주당 20시간인 경우(일평균 3시간 내외)가 가장 많았으며(11.9%), 그다음은 반대로 주당 4시간인 경우(11%)가 많았다. 이 외에 5시간, 10시간, 30시간, 40시간인 경우가 세 번째로 많았다(6.8%). 종합하면, 참여자마다 돌봄 시간은 돌봄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매우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

<표 IV-7> 가족 돌봄에서 본인의 역할 빈도분석 결과

가족 돌봄에서 본인의 역할*	빈도(%)
1. 직접적인 병간호(간병)	72(19.6)
2. 금전적인 지원	45(12.3)
3. 집안일 지원(식사, 청소, 세탁 등)	108(29.4)
4. 통근 지원(병원 동행 등)	53(14.4)
5. 활동 지원(산책, 외출, 운동 도와주기 등)	55(15)
6. 다른 가족 돌보기(형제, 자매, 자녀 돌보기)	25(6.8)
7. 활동 지원은 하지 않음(간병인 통한 케어 또는 다른 가족이 돌봄)	8(2.2)
8. 기타(간헐적 감시)	1(0.3)
계	367(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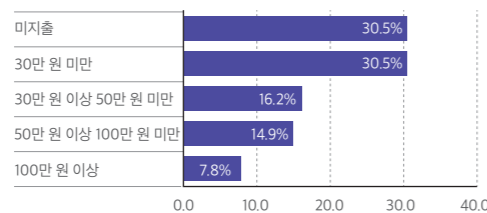


<가족 돌봄에서 본인의 역할에 대한 응답자(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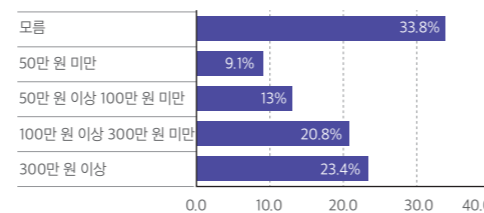
가족 돌봄에서 본인의 역할과 관련하여서는 집안일을 지원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29.4%), 직접적인 병간호(19.6%), 활동 지원(15%)이 뒤를 이었다. 이 외에 통근을 지원하거나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경우도 10% 이상의 응답을 보였다. 참여자들은 대체로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과 간호에 큰 지원을 하고 있었다.

<표 IV-8> 본인 및 가구의 월평균 돌봄 지출액 빈도분석 결과

본인의 월평균 돌봄 지출액	빈도(%)	가구의 월평균 돌봄 총 지출액	빈도(%)
1. 미지출	47(30.5)	1. 모름	52(33.8)
2. 30만 원 미만	47(30.5)	2. 50만 원 미만	14(9.1)
3. 30만 원 이상 50만 원 미만	25(16.2)	3. 5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	20(13)
4. 5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	23(14.9)	4.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32(20.8)
5. 100만 원 이상	12(7.8)	5. 300만 원 이상	36(23.4)



<본인의 월평균 돌봄 지출액(비율)>



<가구의 월평균 돌봄 총 지출액(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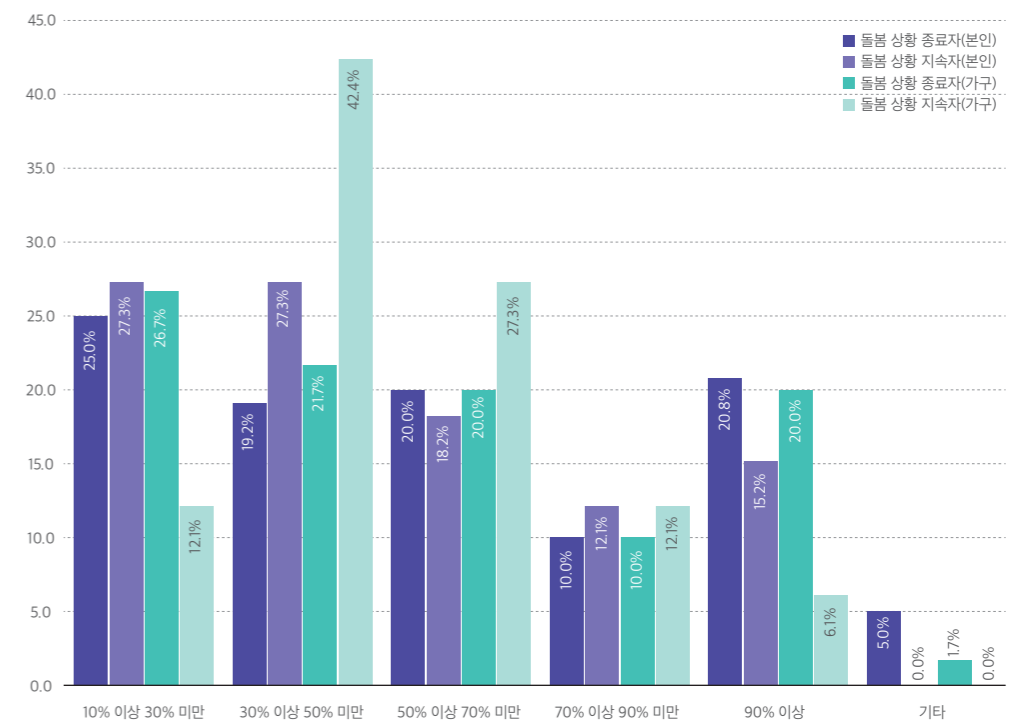
실문 참여자들의 월평균 돌봄 지출액의 경우, 본인의 경우, 미지출이거나 30만 원 미만으로 지출하는 경우가 동등하게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30.5%). 그다음으로는 30만 원 이상 50만 원 미만으로 지출하는 경우가 많았다(16.2%). 참여자 본인은 절반 이상이 월평균 30만 원 미만의 비용을 지출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가구의 월평균 돌봄 총지출액은 모름의 경우를 제외하고 300만 원 이상에 응답한 경우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23.4%), 그다음으로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많았다(20.8%). 두 결과를 종합했을 때, 본인 이외에 다른 가족구성원이 돌봄을 위해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표 IV-9> 돌봄 당시 대비 본인 및 가구의 경제활동 수준 회복 수준 빈도분석 결과

돌봄 상황 종료자(실제)		회복 수준	돌봄 상황 지속자(예상)	
본인	가구		본인	본인
30(25)	32(26.7)	1. 10% 이상 30% 미만	9(27.3)	4(12.1)
23(19.2)	26(21.7)	2. 30% 이상 50% 미만	9(27.3)	14(42.4)
24(20)	24(20)	3. 50% 이상 70% 미만	6(18.2)	9(27.3)
12(10)	12(10)	4. 70% 이상 90% 미만	4(12.1)	4(12.1)
25(20.8)	24(20)	5. 90% 이상	5(15.2)	2(6.1)
6(5)	2(1.7)	6. 기타	0(0)	0(0)
120(100)	120(100)	계	33(100)	33(100)

* 돌봄 상황 종료자에 해당되는 오프라인 응답자 1명이 무응답하여 이 문항만 전체가 153명임
(돌봄 상황 종료자 - 본인) 6. 기타 : 당시에는 학생이어서 수입0원, 돌봄시 미취업(현재는 취업상태), 본인 지출비 없음, 주부임, 직장생활 타격x, 해당사항 없음
(돌봄 상황 종료자 - 가구) 6. 기타 : 모름



<돌봄 상황 종료자 및 지속자의 본인 및 가구의 경제활동 수준 회복 정도(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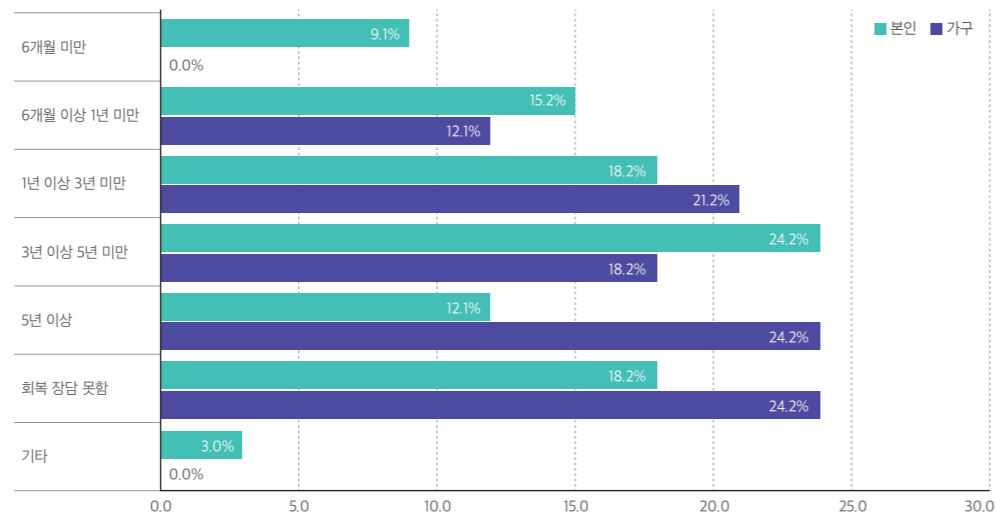
현재 돌봄이 종료된 자를 대상으로 돌봄 당시 대비 본인 및 가구의 경제활동 회복 수준을 조사한 결과, 10% 이상 30% 미만의 회복률을 보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25%), 반대로 90% 이상의 회복을 보인 경우가 그다음으로 많았다(20.8%). 가구의 경우, 10% 이상 30% 미만(26.7%), 30% 이상 50% 미만(21.7%), 90% 이상(20%)의 순의 회복률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대조적인 양상 또한 설문 참여자의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한편, 현재에도 돌봄을 수행하는 자는 회복 수준을 예측하도록 하였는데, 그 결과 본인의 경우, 10% 이상 30% 미만과 30% 이상 50% 미만에 응답한 비율이 동등하게 가장 높았다(27.3%). 다만 본인의 경제 회복 예측은 보기별로 큰 차이 없는 인원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가구의 경우, 약 절반에 가까운 비율(42.4%)로 30% 이상 50% 미만에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50% 이상 70% 미만이 그다음으로 차지하였다(27.3%). 대체로 본인보다는 가구의 경제 회복에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IV-10> 돌봄 상황 지속자의 경제활동 수준 회복 예상 기간 빈도분석 결과

본인	경제활동 수준 회복 예상 기간	가구
3(9.1)	1. 6개월 미만	0(0)
5(15.2)	2. 6개월 이상 1년 미만	4(12.1)
6(18.2)	3. 1년 이상 3년 미만	7(21.2)
8(24.2)	4. 3년 이상 5년 미만	6(18.2)
4(12.1)	5. 5년 이상	8(24.2)
6(18.2)	6. 회복 장담 못함	8(24.2)
1(3)	7. 기타	0(0)
33(100)	계	33(100)

(본인) 7. 기타 : 6개월 이하



<돌봄 상황 지속자의 본인 및 가구의 경제활동 수준 회복 예상 기간(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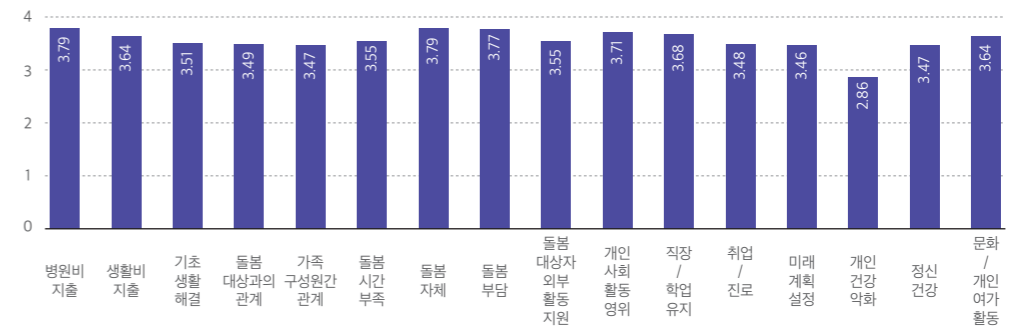
돌봄 상황 지속자를 대상으로 경제활동 수준이 회복되기까지의 예상 기간을 설문한 결과, 3년 이상에서 5년 미만으로 예측한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24.2%), 그다음은 1년 이상에서 3년 미만과 회복 장담 못함이 동등한 비율(18.2%)을 차지하였다. 본인의 회복에는 다소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가구의 경우, 5년 이상과 회복을 장담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동등하게 24.2%로 가장 높았다. 이 외에 1년 이상 3년 미만이 다음을 차지하였다(21.2%). 이러한 결과는 본인에 비해 가구의 회복이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리라는 예측을 보여준다.

<표 IV-11> 돌봄 상황에서 느낀 본인의 어려움 빈도분석 결과

구분	경제활동 수준 회복 예상 기간	1	2	3	4	5	평균
경제적 측면	1) 돌봄으로 인한 병원비 지출의 어려움	4 (2.6)	11 (7.1)	42 (27.3)	54 (35.1)	43 (27.9)	3.79
	2) 돌봄으로 인한 생활비(주거비 등) 지출의 어려움	2 (1.3)	17 (11)	51 (33.1)	48 (31.2)	36 (23.4)	3.64
	3) 돌봄으로 인한 기초생활 해결의 어려움	2 (1.3)	24 (15.6)	53 (34.4)	43 (27.9)	32 (20.8)	3.51
돌봄 측면	4) 돌봄 대상과의 관계적 어려움(안전문제, 돌봄의 갈등 등)	10 (6.5)	15 (9.7)	47 (30.5)	53 (34.4)	29 (18.8)	3.49
	5) 가족 구성원 간 관계의 어려움(역할 분담에 따른 갈등 등)	12 (7.8)	19 (12.3)	40 (26)	51 (33.1)	32 (20.8)	3.47
	6) 돌봄 시간 부족에 따른 어려움	8 (5.2)	18 (11.7)	41 (26.6)	55 (35.7)	32 (20.8)	3.55

	7) 돌봄 자체의 어려움	3 (1.9)	14 (9.1)	40 (26)	52 (33.8)	45 (29.2)	3.79
	8) 돌봄으로 인한 부담감에 따른 어려움	3 (1.9)	12 (7.8)	45 (29.2)	51 (33.1)	43 (27.9)	3.77
	9) 돌봄 대상자 외부활동 지원에 따른 어려움(병원 동행 등)	9 (5.8)	12 (7.8)	49 (31.8)	54 (35.1)	30 (19.5)	3.55
삶의 질 측면	10) 돌봄으로 인한 개인 사회활동 영위의 어려움	7 (4.5)	14 (9.1)	37 (24)	55 (35.7)	41 (26.6)	3.71
	11) 돌봄으로 인한 직장생활/학업 유지의 어려움	10 (6.5)	11 (7.1)	38 (24.7)	55 (35.7)	40 (26)	3.68
	12) 돌봄으로 인한 취업/진로에 대한 어려움	13 (8.4)	22 (14.3)	33 (21.4)	50 (32.5)	36 (23.4)	3.48
	13) 돌봄으로 인한 미래계획 설정에 대한 어려움	13 (8.4)	22 (14.3)	36 (23.4)	47 (30.5)	36 (23.4)	3.46
	14) 돌봄으로 인한 개인 건강 상태 악화의 어려움	26 (16.9)	41 (26.6)	33 (21.4)	36 (23.4)	18 (11.7)	2.86
	15) 돌봄으로 인한 정신 건강 문제의 어려움(우울, 분노, 힘들 등)	18 (11.7)	14 (9.1)	39 (25.3)	43 (27.9)	40 (26)	3.47
	16) 돌봄으로 인한 문화·개인 여가 활동 관련 어려움	9 (5.8)	11 (7.1)	39 (25.3)	63 (40.9)	32 (20.8)	3.64

* 1. 전혀 어렵지 않음, 2. 어렵지 않음, 3. 보통, 4. 어려움, 5. 매우 어려움



<범주별 돌봄 상황에서 느낀 본인의 어려움(평균)>

돌봄 상황에서 느낀 어려움과 관련하여 경제적 측면에서는 병원비 지출의 어려움에 어려움을 호소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35.1%). 생활비 지출 및 기초생활 해결과 관련하여서는 보통에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지만(각 33.1%, 34.4%), 어려움을 호소한 응답(4번 및 5번)이 절반 내외를 차지한 점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이가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돌봄의 측면에서는 돌봄 대상과의 관계적 어려움, 가족 구성원 간 관계의 어려움, 돌봄 시간 부족의 어려움, 돌봄 자체의 어려움, 돌봄 부담감, 돌봄 대상자의 외부 활동 지원의 어려움 모두에 어렵다(4번)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4번 및 5번에 응답한 비율 모두 절반 이상인 점에서 전 영역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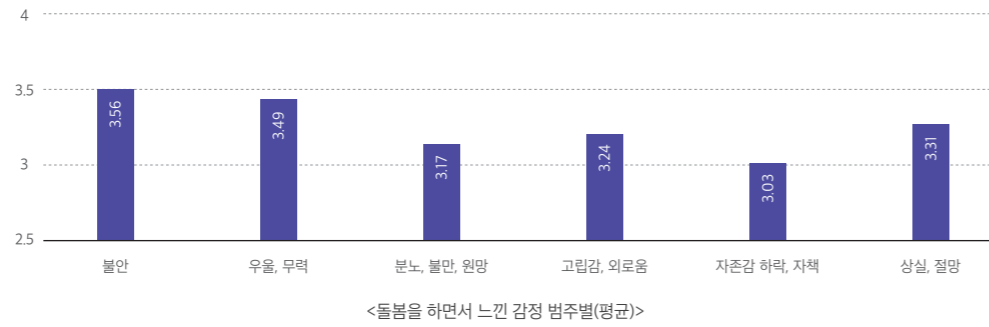
삶의 질 측면에서는 개인 사회활동 영위, 직장생활 및 학업 유지, 취업 및 진로, 미래 계획 설정, 정신 건강 문제, 문화 및 개인 여가 활동에 어려움(4번)을 호소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4번 및 5번에 응답한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다만, 본인의 건강 상태에 대한 어려움은 없다(2번)고 보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26.6%), 어려움이 있거나 보통이라고 응답한 자도 그다음으로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 점에서 대체로는 돌봄 대상자와 달리 본인의 건강은 별개의 것이지만, 경우에 따라 본인의 건강도 악화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각 문항별 4번과 5번에 응답한 비중으로 비교하여 우선순위를 도출한 결과, 설문 참여자들은 병원비 지출과 돌봄 그 자체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으며(63%), 그다음으로 개인 사회활동 영위(62.3%), 직장생활/학업 유지, 문화·개인 여가(61.7%)의 어려움을 겪었다. 상위에 해당하는 문항들은 병원비 및 돌봄으로 인한 돌봄자의 개인 생활 지장에 해당하는 것들로 종합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개인 건강 상태를 제외한 모든 문항은 절반이 넘는 참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2> 돌봄을 하면서 느낀 감정 빈도분석 결과

문항	1	2	3	4	5	평균
1) 불안	6(3.9)	22(14.3)	35(22.7)	61(39.6)	30(19.5)	3.56
2) 우울, 무력	11(7.1)	22(14.3)	35(22.7)	53(34.4)	33(21.4)	3.49
3) 분노, 불만, 원망	20(13)	23(14.9)	46(29.9)	41(26.6)	24(15.6)	3.17
4) 고립감, 외로움	16(10.4)	34(22.1)	32(20.8)	41(26.6)	31(20.1)	3.24
5) 자존감 하락, 자책	25(16.2)	29(18.8)	39(25.3)	39(25.3)	22(14.3)	3.03
6) 상실, 절망	16(10.4)	28(18.2)	33(21.4)	46(29.9)	31(20.1)	3.31

* 1. 전혀 동의하지 않음, 2. 동의하지 않음, 3. 보통, 4. 동의함, 5. 매우 동의함



돌봄을 하며 느낀 감정과 관련하여서는 불안, 우울·무력, 고립감·외로움, 상실·전망에 동의한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만, 분노·불만·원망의 경우,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많았으며(29.9%), 비슷하게 동의한 경우도 그다음으로 많았다(26.6%). 자존감 하락·자책의 경우, 보통이라고 응답한 자와 동의한다고 응답한 자의 비중이 동일하게 가장 높았다(2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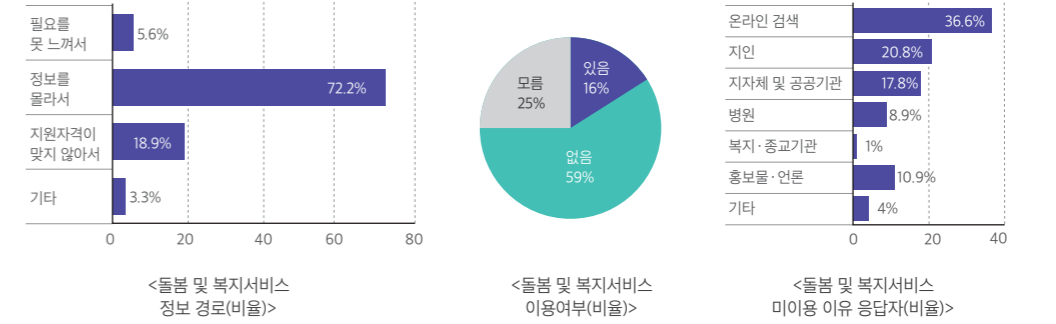
나. 돌봄 및 복지서비스 경험과 수요

<표 IV-13> 돌봄 및 복지서비스 이용 여부 및 그에 대한 경로나 이유 빈도분석 결과

이용하지 않은 이유	빈도(%)	돌봄 및 복지지원서비스 이용 여부	빈도(%)
1. 필요를 못 느껴서	5(5.6)	1. 있음	25(16.2)
2. 정보를 몰라서	65(72.2)	2. 없음	90(58.4)
3. 지원자격이 맞지 않아서	17(18.9)	3. 모름	39(25.3)
4. 기타	3(3.3)	계	154(100)
계	90(100)		

4. 기타 : 당사자 거부, 아버지가 타인을 무시위해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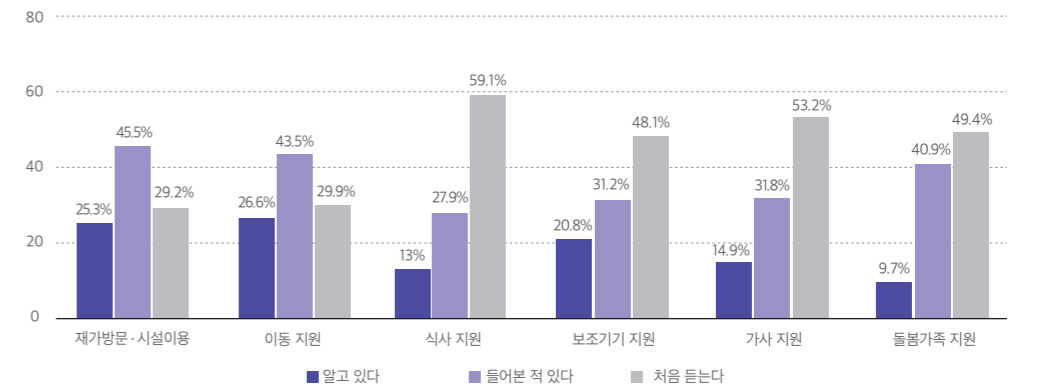
정보 경로*	빈도(%)
1. 온라인 검색(복지로 등)	37(36.6)
2. 지인(친구, 이웃, 친척)	21(20.8)
3. 지자체 및 공공기관	18(17.8)
4. 병원	9(8.9)
5. 복지·종교기관	1(1)
6. 학교	0(0)
7. 홍보물·언론	11(10.9)
8. 기타	4(4)
계	101(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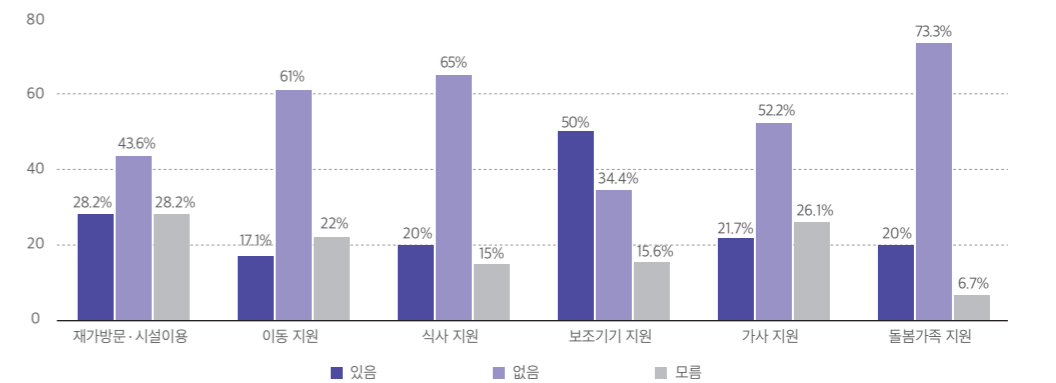
설문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돌봄 및 복지서비스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지 설문한 결과, 이용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중이 절반 이상으로 가장 높았다(58.4%). 이러한 데에는 정보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한 이유가 가장 많았다(72.2%). 한편, 이용한 이력이 있는 자의 경우, 온라인 검색을 통한 경로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36.6%), 그다음으로 지인을 통한 경우가 많았다(20.8%).

<표 IV-14> 돌봄서비스 인지도 및 경험 여부 빈도 분석 결과

구분	알고 있음	들어본 적 있음	처음 들음	이용경험 있음	이용경험 없음	이용경험 모름	계
1. 재가방문·시설이용	39(25.3)	70(45.5)	45(29.2)	11(28.2)	17(43.6)	11(28.2)	39(100)
2. 이동지원	41(26.6)	67(43.5)	46(29.9)	7(17.1)	25(61)	9(22)	41(100)
3. 식사지원	20(13)	43(27.9)	91(59.1)	4(20)	13(65)	3(15)	20(100)
4. 보조기기지원	32(20.8)	48(31.2)	74(48.1)	16(50)	11(34.4)	5(15.6)	32(100)
5. 가사지원	23(14.9)	49(31.8)	82(53.2)	5(21.7)	12(52.2)	6(26.1)	23(100)
6. 돌봄가족지원	15(9.7)	63(40.9)	76(49.4)	3(20)	11(73.3)	1(6.7)	15(100)



<돌봄서비스 인지도(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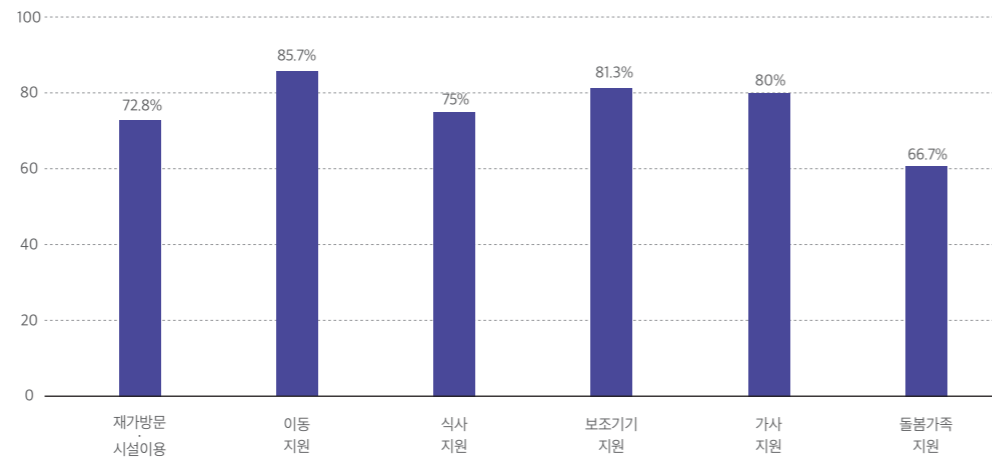


<돌봄서비스 경험 여부(비율)>

돌봄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를 설문한 결과, 재가방문·시설 이용, 이동지원의 경우, 들어본 적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각 45.5%, 43.5%), 식사 지원, 보조기기 지원, 가사 지원, 돌봄가족지원은 처음 듣는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각 59.1%, 48.1%, 53.2%, 49.4%).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경우, 보조기기 지원을 제외한 모든 지원은 경험이 없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인식 수준이 낮은 지원에 대한 홍보 및 안내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IV-15> 돌봄서비스 이용경험 만족도 빈도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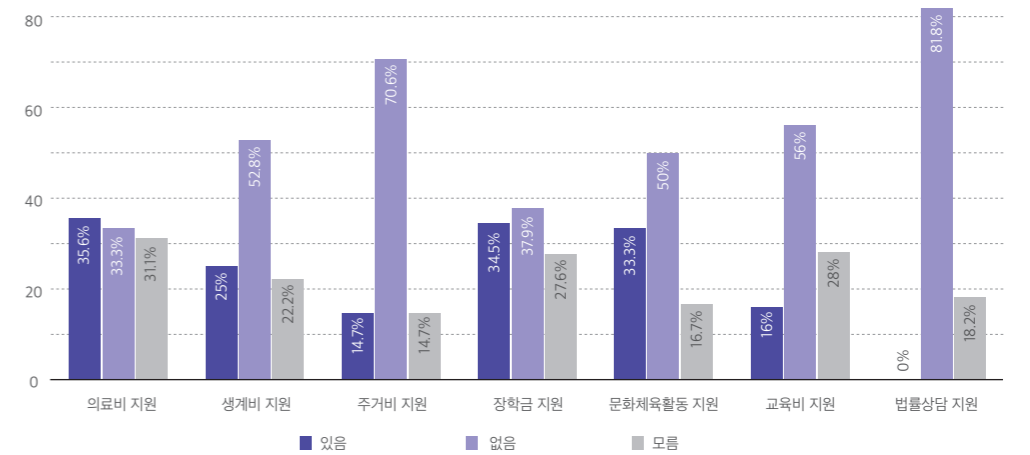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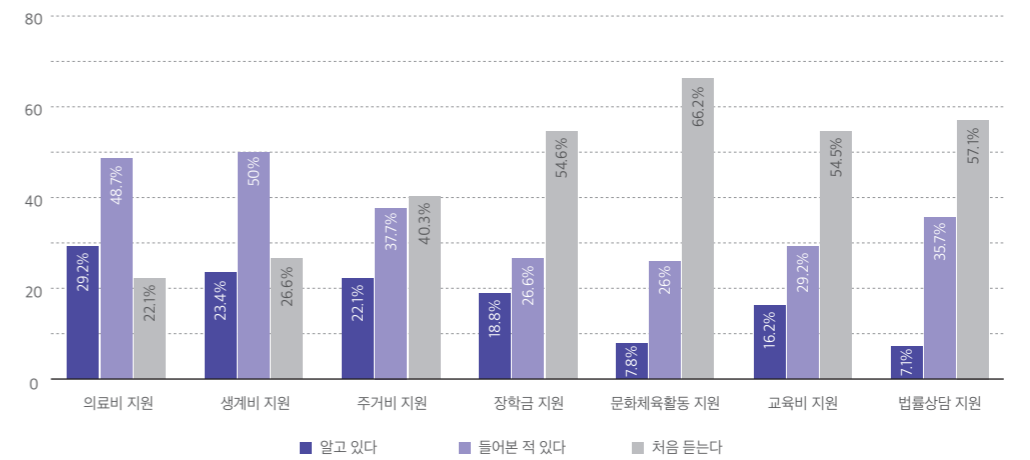
구분	1 매우 만족	2 만족	3 보통	4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계	평균
1. 재가방문·시설이용	5(45.5)	3(27.3)	2(18.2)	1(9.1)	0(0)	11(100)	1.91
2. 이동지원	1(14.3)	5(71.4)	1(14.3)	0(0)	0(0)	7(100)	2.00
3. 식사지원	0(0)	3(75)	1(25)	0(0)	0(0)	4(100)	2.25
4. 보조기기지원	4(25)	9(56.3)	3(18.8)	0(0)	0(0)	16(100)	1.94
5. 가사지원	2(40)	2(40)	1(20)	0(0)	0(0)	5(100)	1.80
6. 돌봄가족지원	0(0)	2(66.7)	1(33.3)	0(0)	0(0)	3(100)	2.33



돌봄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재가방문·시설 이용은 매우 만족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45.5%), 이동지원, 식사지원, 보조기기지원, 돌봄가족지원은 만족에 해당하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각 71.4%, 75%, 56.3%, 66.7%). 가사 지원의 경우, 매우 만족한 비중과 만족한 비중이 동일하게 가장 많았다(40%). 전반적으로 현 돌봄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면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종합할 수 있다.

<표 IV-16> 복지지원서비스 인지도 및 경험 여부 빈도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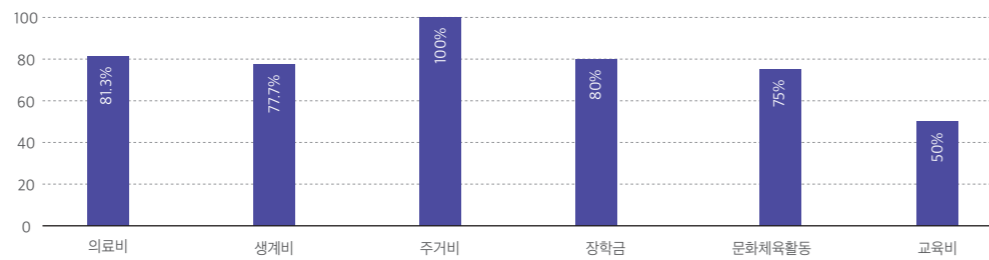
구분	알고 있음	들어본 적 있음	처음 들음	이용경험 있음	이용경험 없음	이용경험 모름	계
1. 의료비 지원	45(29.2)	75(48.7)	34(22.1)	16(35.6)	15(33.3)	14(31.1)	45(100)
2. 생계비 지원	36(23.4)	77(50)	41(26.6)	9(25)	19(52.8)	8(22.2)	36(100)
3. 주거비 지원	34(22.1)	58(37.7)	62(40.3)	5(14.7)	24(70.6)	5(14.7)	34(100)
4. 장학금 지원	29(18.8)	41(26.6)	84(54.6)	10(34.5)	11(37.9)	8(27.6)	29(100)
5. 문화체육활동 지원	12(7.8)	40(26)	102(66.2)	4(33.3)	6(50)	2(16.7)	12(100)
6. 교육비 지원	25(16.2)	45(29.2)	84(54.5)	4(16)	14(56)	7(28)	25(100)
7. 법률상담 지원	11(7.1)	55(35.7)	88(57.1)	0(0)	9(81.8)	2(18.2)	11(100)



복지지원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를 설문한 결과, 의료비 지원과 생계비 지원은 들어본 적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각 48.7%, 50%), 반면, 주거비 지원, 장학금 지원, 문화체육활동 지원, 교육비 지원, 법률상담 지원은 처음 듣는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각 40.3%, 54.6%, 66.2%, 54.5%, 57.1%).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경우, 생계비 지원, 주거비 지원, 문화체육활동 지원, 교육비 지원, 법률상담 지원은 이용 경험 없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의료비 지원은 경험이 있는 비중과 없는 비중이 동일하였다(34.8%). 장학금 지원의 경우에도 이용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지만(37.9%), 경험이 있는 응답도 그다음으로 비슷한 비중으로 많았다(34.5%).

<표 IV-17> 복지지원서비스 만족도 빈도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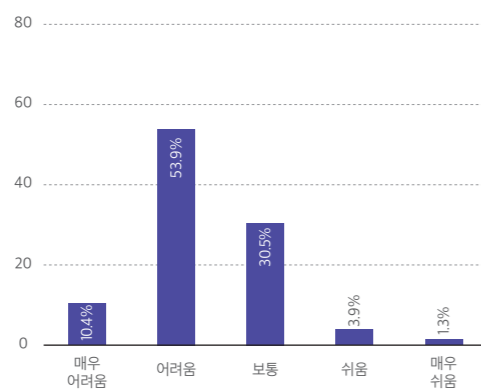
구분	1 매우 만족	2 만족	3 보통	4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계	평균
1. 의료비 지원	5(31.3)	8(50)	2(12.5)	1(6.3)	0(0)	16(100)	1.94
2. 생계비 지원	4(44.4)	3(33.3)	2(22.2)	0(0)	0(0)	9(100)	1.78
3. 주거비 지원	4(80)	1(20)	0(0)	0(0)	0(0)	5(100)	1.20
4. 장학금 지원	4(40)	4(40)	2(20)	0(0)	0(0)	10(100)	1.80
5. 문화체육활동 지원	1(25)	2(50)	1(25)	0(0)	0(0)	4(100)	2.00
6. 교육비 지원	0(0)	2(50)	2(50)	0(0)	0(0)	4(100)	2.50
7. 법률상담 지원	-	-	-	-	-	-	-



복지지원 서비스의 경험이 있는 참여자의 경우, 생계비 지원과 주거비 지원은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각 44.4%, 80%), 장학금 지원은 매우 만족과 만족의 비중이 동일하게 가장 많았다(40%). 의료비 지원 및 문화체육활동 지원 또한 만족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각 50%). 반면, 교육비 지원은 만족한다는 응답과 보통이라는 응답이 동일한 비중으로 가장 많았다(50%). 법률상담 지원은 경험자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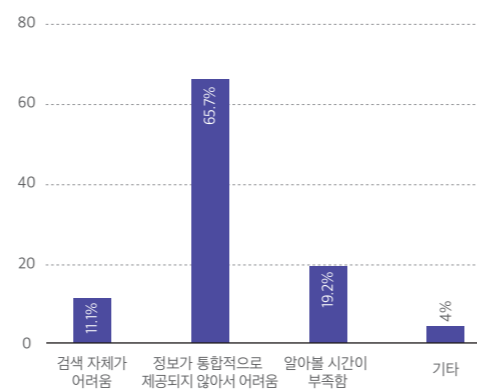
<표 IV-18> 돌봄 및 복지서비스 정보 취득의 난이도 빈도분석 결과

난이도	빈도(%)
1. 매우 어려움	16(10.4)
2. 어려움	83(53.9)
3. 보통	47(30.5)
4. 쉬움	6(3.9)
5. 매우 쉬움	2(1.3)



돌봄 및 복지서비스를 취득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의 정도와 관련된 질문에서는 어렵다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53.9%), 그 이유로는 정보가 분산되어 제공된다는 점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65.7%).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돌봄 및 복지서비스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사이트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어려움의 이유	빈도(%)
1. 검색 자체가 어려움	11(11.1)
2. 정보가 통합적으로 제공되지 않아서 어려움	65(65.7)
3. 알아볼 시간이 부족함	19(19.2)
4. 기타	4(4)
계	99(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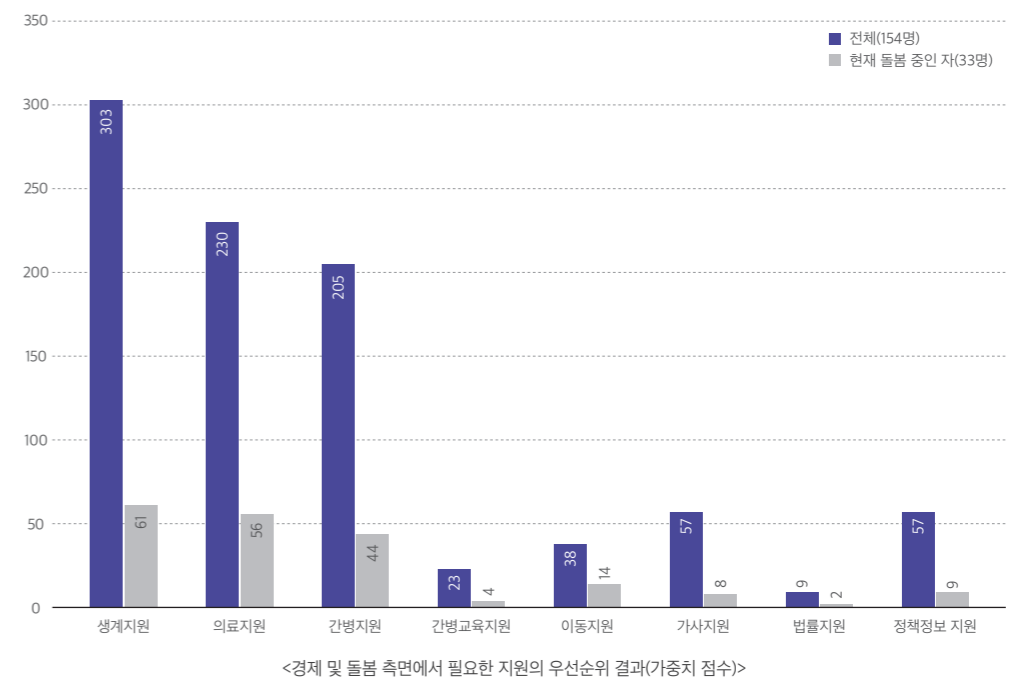


<표 IV-19> 경제 및 돌봄 측면에서 필요한 지원의 우선순위 결과(전체, N=154)

경제 및 돌봄 측면에서 필요한 지원	1순위	2순위	3순위	단순 합계	가중치 부여 점수	가중치 순위
1. 생계지원	79(51.3)	20(13)	26(16.9)	125	303	1
2. 의료지원	28(18.2)	59(38.3)	28(18.2)	115	230	2
3. 간병지원	33(21.4)	35(22.7)	36(23.4)	104	205	3
4. 간병교육지원	1(0.6)	9(5.8)	2(1.3)	12	23	7
5. 이동지원	1(0.6)	8(5.2)	19(12.3)	28	38	6
6. 가사지원	3(1.9)	12(7.8)	24(16.2)	39	57	4
7. 법률지원	1(0.6)	3(1.9)	0(0)	4	9	8
8. 각종 지원정책 정보지원	8(5.2)	8(5.2)	17(11.7)	33	57	4

<표 IV-20> 경제 및 돌봄 측면에서 필요한 지원의 우선순위 결과(현재 돌봄 중인 자, N=33)

경제 및 돌봄 측면에서 필요한 지원	1순위	2순위	3순위	단순 합계	가중치 부여 점수	가중치 순위
1. 생계지원	15(45.5)	7(21.2)	2(6.1)	24	61	1
2. 의료지원	9(27.3)	11(33.3)	7(21.2)	27	56	2
3. 간병지원	8(24.2)	6(18.2)	8(24.2)	22	44	3
4. 간병교육지원	0(0)	1(3)	2(6.1)	3	4	7
5. 이동지원	1(3)	4(12.1)	3(9.1)	8	14	4
6. 가사지원	0(0)	1(3)	6(18.2)	7	8	6
7. 법률지원	0(0)	1(3)	0(0)	1	2	8
8. 각종 지원정책 정보지원	0(0)	2(6.1)	5(15.2)	7	9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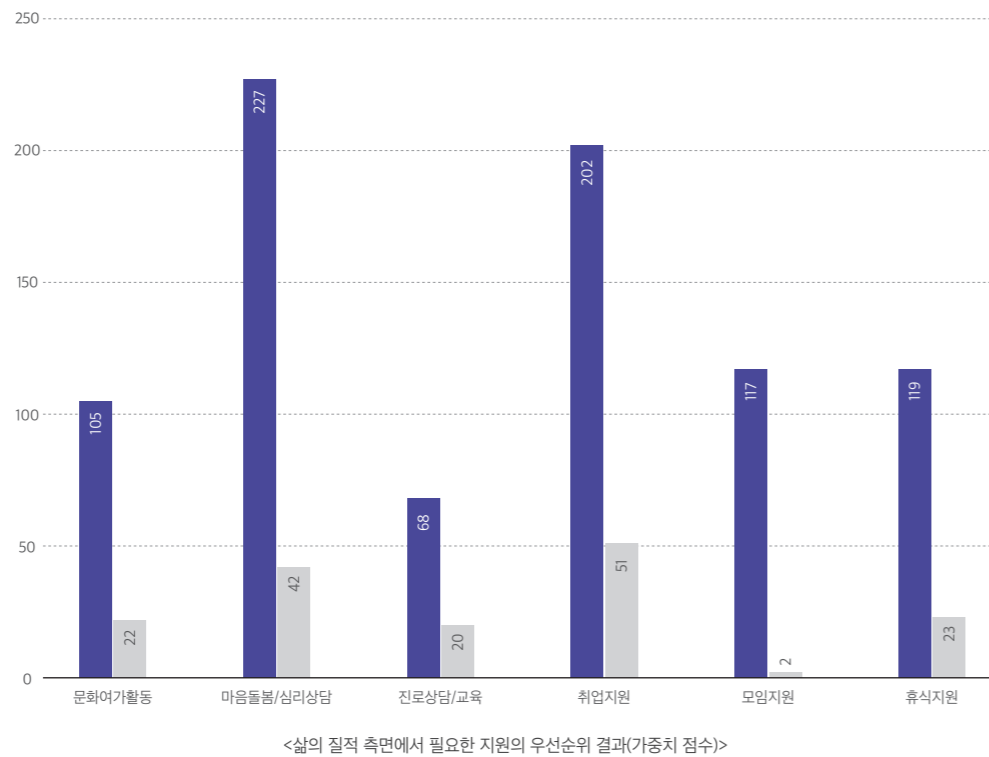
경제 및 돌봄 측면에서 필요한 지원의 우선순위를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중치를 부여하여 우선순위를 매겼을 때 생계지원, 의료지원, 간병 지원 순의 순위를 보였다. 이는 현재 돌봄 중인 자를 대상으로 한 우선순위와 동일하다. 다만 현재 돌봄 중인 자는 그다음으로 이동지원, 각종 지원 정책 정보지원, 가사 지원 순의 우선순위를 보였으며, 전체집단의 경우, 가사 지원, 각종 지원 정책 정보지원, 이동지원 순의 우선순위를 보인 점에서 차이가 있다. 현재 돌봄 중인 자에 초점을 둔다면 이동지원에 보다 신경써야 있을 것이다.

<표 IV-21> 삶의 질적 측면에서 필요한 지원의 우선순위 결과(전체, N=154)

삶의 질적 측면에서 필요한 지원	1순위	2순위	3순위	단순 합계	가중치 부여 점수	가중치 순위
1. 문화여가활동	11(7.1)	24(15.6)	24(15.6)	59	105	6
2. 마음돌봄/심리상담	42(27.3)	34(22.1)	33(21.4)	109	227	1
3. 진로상담/교육	2(1.3)	22(14.3)	18(11.7)	42	68	7
4. 취업지원	43(27.9)	23(14.9)	27(17.5)	93	202	2
5. 모임지원(커뮤니티활동)	35(22.7)	4(2.6)	4(2.6)	43	117	5
6. 휴식지원	21(13.6)	26(16.9)	31(20.1)	78	146	3
7. 각종 지원정책 정보지원	20(13.2)	21(13.6)	17(11)	58	119	4

<표 IV-22> 삶의 질적 측면에서 필요한 지원의 우선순위 결과(현재 돌봄 중인 자, N=33)

삶의 질적 측면에서 필요한 지원	1순위	2순위	3순위	단순 합계	가중치 부여 점수	가중치 순위
1. 문화여가활동	2(6.1)	6(18.2)	4(12.1)	12	22	5
2. 마음돌봄/심리상담	7(21.2)	6(18.2)	9(27.3)	22	42	2
3. 진로상담/교육	0(0)	8(24.2)	4(12.1)	12	20	6
4. 취업지원	13(39.4)	3(9.1)	6(18.2)	22	51	1
5. 모임지원(커뮤니티활동)	0(0)	1(3)	0(0)	1	2	7
6. 휴식지원	9(27.3)	2(6.1)	7(21.2)	18	38	3
7. 각종 지원정책 정보지원	2(6.1)	7(21.2)	3(9.1)	12	23	4



삶의 질적 측면에서 필요한 지원의 우선순위 경우, 전체를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매겼을 때 마음 돌봄/심리상담, 취업 지원, 휴식 지원 순의 순위를 보였다. 그러나 현재 돌봄 중인 자를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매겼을 때는 1순위가 취업 지원, 2순위가 마음 돌봄/심리상담, 3순위가 휴식 지원으로 취업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또한 전체 집단에서는 모임 지원이 5순위를 차지하였지만, 현재 돌봄자의 경우에는 가장 낮은 순위를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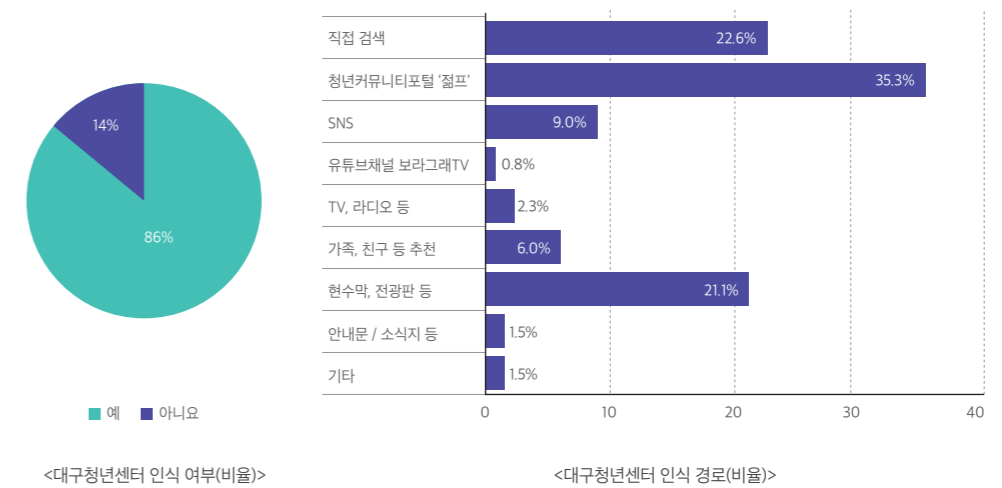
현재 가족돌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청년의 경우 취업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가족돌봄이 종료된 청년의 경우 마음 돌봄, 심리상담 등의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는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 청년정책 경험

<표 IV-23> 대구청년센터 인식 여부 및 경로 빈도 분석결과

대구청년센터 인식 여부	빈도(%)	대구청년센터 인식 여부	빈도(%)
1. 예	133(86.4)	2. 아니오	21(1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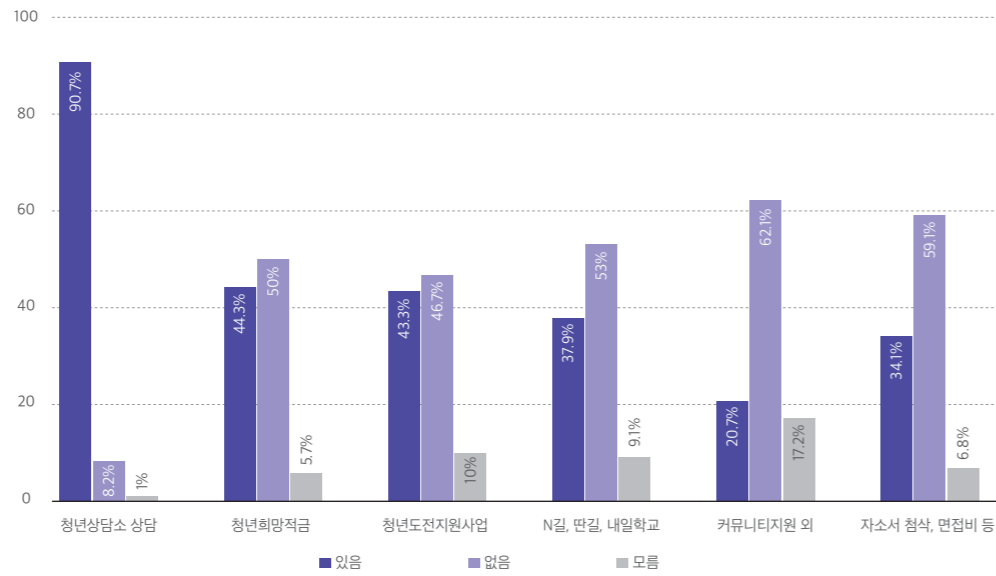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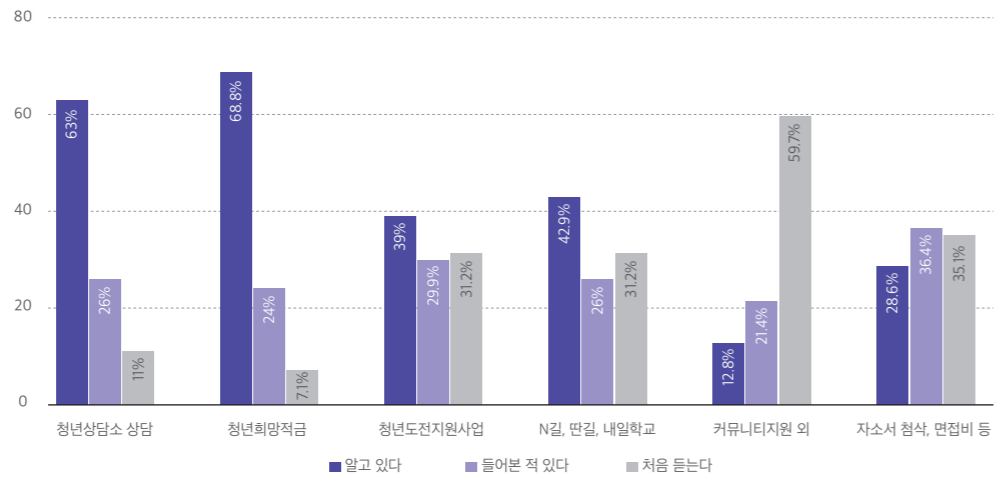
대구청년센터 인식 여부	빈도(%)	대구청년센터 인식 여부	빈도(%)
1. 직접 검색(청년정책 등 키워드로)	30(22.6)	6. 가족, 친구 등 추천	8(6)
2. 청년커뮤니티포털 '점프'	47(35.3)	7. 현수막, 전광판 등 거리홍보물	28(21.1)
3.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12(9)	8. 청년주간, 정책설명회 등 행사	0(0)
4. 유튜브채널 보라그래TV	1(0.8)	9. 안내문 / 소식지 등	2(1.5)
5. TV, 라디오 등 언론매체	3(2.3)	10. 기타(문자, 취업상담)	2(1.5)
계		133(100)	



설문 참여자들의 대구청년센터 인식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대다수가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86.4%), 그 경로는 점프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응답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35.3%), 그다음으로 직접 검색(22.6%), 거리홍보물(21.1%)이 높았다.

<표 IV-24> 대구시 청년 정책 인식 및 경험 여부 빈도분석 결과

구분	알고 있다	들어본 적은 있다	처음 듣는다	이용 경험 있음	이용 경험 없음	이용 경험 모름	계
1. 청년상담소 상담(사회진입활동지원금)	97 (63)	40 (26)	17 (11)	88 (90.7)	8 (8.2)	1 (1)	97 (100)
2. 청년희망적금	106 (68.8)	37 (24)	11 (7.1)	47 (44.3)	53 (50)	6 (5.7)	106 (100)
3. 청년도전지원사업	60 (39)	46 (29.9)	48 (31.2)	26 (43.3)	28 (46.7)	6 (10)	60 (100)
4. 진로탐색학교 N길, 탄길, 내일학교	66 (42.9)	40 (26)	48 (31.2)	25 (37.9)	35 (53)	6 (9.1)	66 (100)
5. 커뮤니티지원, 동천살롱, 공동체지원	29 (18.8)	33 (21.4)	92 (59.7)	6 (20.7)	18 (62.1)	5 (17.2)	29 (100)
6. 자소서 첨삭, 면접비, 멘토링 등	44 (28.6)	56 (36.4)	54 (35.1)	15 (34.1)	26 (59.1)	3 (6.8)	44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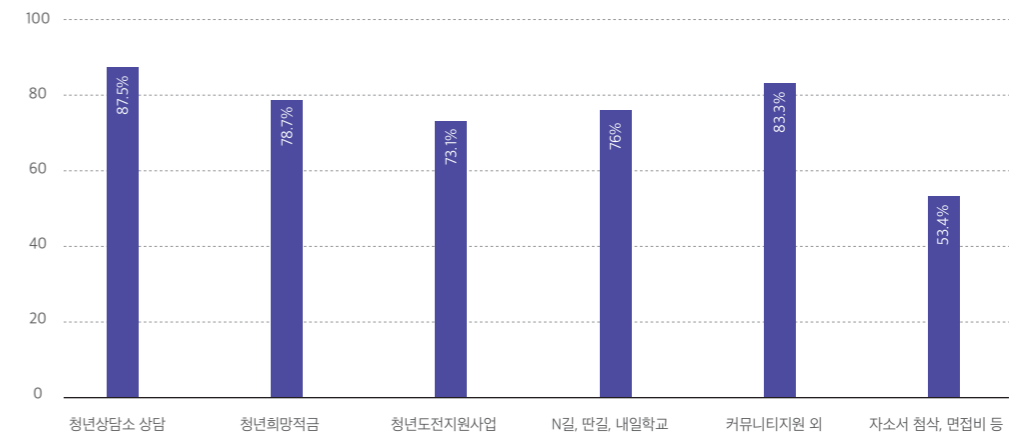
대구시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청년상담소 상담, 청년희망적금은 절반 이상이 잘 알고 있었으며(각 63%, 68.8%), 청년도전지원사업, 진로탐색학교 N길, 탄길, 내일학교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았다(각 39%, 42.9%). 다만 커뮤니티나 공동체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이 처음 듣는다고 응답하였다(59.7%). 취업 지원(자소서 첨삭, 면

접비, 멘토링 등)은 들어본 적 있다고 응답한 인원(36.4%)과 처음 듣는 인원(35.1%)이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용경험과 관련하여서는 청년상담소 상담은 대다수가 경험 이력이 있었으며(89.8%),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경험이 없는 자가 50% 내외를 차지하였으며(각 50%, 46.7%), 반대로 이용경험이 있는 자도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였다(44.3%, 43.3%). 진로탐색학교 N길, 탄길, 내일학교, 커뮤니티나 공동체를 지원하는 사업. 취업 지원(자소서 첨삭, 면접비, 멘토링 등)의 경우, 이용한 적 없는 자가 절반 이상이었다(각 53.7%, 63.3%, 60%).

<표 IV-25> 대구시 청년 정책 경험자의 만족도 빈도 분석 결과

구분	1 매우 만족	2 만족	3 보통	4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계	평균
1. 청년상담소 상담(사회진입활동지원금)	45(51.1)	32(36.4)	9(10.2)	2(2.3)	0(0)	88(100)	1.64
2. 청년희망적금	22(46.8)	15(31.9)	7(14.9)	3(6.4)	0(0)	47(100)	1.81
3. 청년도전지원사업	13(50)	6(23.1)	7(26.9)	0(0)	0(0)	26(100)	1.77
4. 진로탐색학교 N길, 탄길, 내일학교	12(48)	7(28)	5(20)	1(4)	0(0)	25(100)	1.80
5. 커뮤니티지원, 동천살롱, 공동체지원	3(50)	2(33.3)	0(0)	1(16.7)	0(0)	6(100)	1.83
6. 자소서 첨삭, 면접비, 멘토링 등	4(26.7)	4(26.7)	5(33.3)	1(6.7)	1(6.7)	15(100)	2.40



대구시 청년정책에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해당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청년상담소 상담,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전지원사업, 진로탐색학교 N길, 탄길, 내일학교, 커뮤니티나 공동체를 지원하는 사업에 매우 만족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다(각 51.1%, 46.8%, 50%, 48%, 50%). 취업 지원(자소서 첨삭, 면접비, 멘토링 등)의 경우, 매우 만족, 만족, 보통의 비중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각 26.7%, 26.7%, 33.3%).

2023 대구 청년의

가족돌봄청년 YOUNG CARER

으로서의 경험에 대한 실태 조사

V. 결론

Young
Carer

V. 결론

1. 요약

선행연구 분석 결과, 가족돌봄청년은 돌봄을 수행할 가족 구성원이 부족하며, 돌봄대상자의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돌봄을 맡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간병인 역할, 가사노동, 경제적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모두 수행해야 했으며, 이에 따라 곁없는 돌봄 부담, 부정적 감정, 부족한 자기 시간, 취업 준비 집중, 금전적 부담의 문제를 앓고 있었다. 이에 향후에는 제도적 기반 마련,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경제적 지원, 직접 사례 발굴의 후속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정책 동향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실생활이나 돌봄에 필요한 추가교육 및 자조모임 등의 공동체 형성 지원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돌봄 및 심리 지원, 사례 관리, 조력 마련의 지원도 많이 추진되고 있었다. 다만, 국내에서는 특정 지역에서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선행연구 분석 결과에서의 제언을 고려한다면 좀 더 다각적인 부문에서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대구권역에 거주 중인 만 19~39세의 가족돌봄청년 154명의 응답을 최종적으로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 돌봄과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 빈도 분석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었다. 응답자가 많은 보기의 경우, 주요 결과를 빈도 및 평균 상위 3순위까지 제시하고자 한다.

<표 V-1> 설문조사 빈도 분석 주요 결과

구분	내용
인적 정보	- 성별 : 여(66.9%) > 남(33.1%)
	- 출생연도 : 1994~1998년생(44.2%) > 1989~1993년생(34.4%) > 1984~1988년생(11.7%) > 1999~2002년생(9.7%)
	- 최종학력 : (초)대학 졸업(77.3%) > 대학 중퇴(7.1%) > 고졸 이하(6.5%)
	- 현 경제활동 상태 : 경제 활동 중(43.5%) > 취업 준비 중(39%) > 구직활동 없이 쉬는 중(6.5%)
	- 근로 형태 : 상용근로자(61.2%) > 임시근로자(22.4%) > 기타 종사자(9%)
	- 거주지역 : 달서구(27.3%) > 북구(17.5%) > 동구(15.6%)
	- 동거 중인 가족 구성원 : 모(30%) > 부(22.9%) > 형제·자매(21.9%)
	- 돌봄 현황 : 현재는 돌봄 종료(78.6%) > 현재 돌봄 중(21.4%)
	- 돌봄역할을 하는 기타 구성원 수 : 1명(46.4%) > 없음(37%) > 2명(30.9%)
	돌봄의 형태와 방식
- 돌봄이 필요한(했던) 가구원의 건강 상태 : 중증질환(32.8%) > 재해·사고(16.9%) > 장기요양 인정 등급(15.3%)	
- 돌봄 주요 책임자 : 모(35.5%) > 본인(26.9%) > 부(24.8%)	
- 주당 가족 돌봄 시간 : 20시간(11.9%) > 13시간(11%) > 5, 10, 30, 40시간(6.8%)	

돌봄의 형태와 방식	- 돌봄 총 기간 : 6개월 미만(35.7%) > 1년 이상~3년 미만(24.7%) > 1년 미만(16.9%)		
	- 가족 돌봄에서 본인의 역할 : 집안일 지원(29.4%) > 직접적인 병간호(19.6%) > 활동 지원(15%)		
	- 월평균 돌봄 지출액 : 미지출, 30만 원 미만(30.5%) > 30만 원 이상 50만 원 미만(16.2%)		
	- 가구의 월평균 돌봄 지출액 : 모름(33.8%) > 300만 원 이상(23.4%) >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20.8%)		
	· 돌봄 상황 종료자의 경제활동 회복 수준(실제) - 본인 : 10% 이상 30% 미만(25%) > 90% 이상(20.8%) > 30% 이상 50% 미만(19.2%) - 가구 : 10% 이상 30% 미만(26.7%) > 30% 이상 50% 미만(21.7%) > 50%이상 70% 미만, 90% 이상(20%)		
	· 돌봄 상황 지속자의 경제활동 회복 수준(예상) - 본인 : 10% 이상 30% 미만, 30% 이상 50% 미만(27.3%) > 50% 이상 70% 미만 (18.1%) - 가구 : 30% 이상 50% 미만(42.4%) > (21.7%) > 50%이상 70% 미만(27.3%), 10% 이상 30% 미만, 70% 이상 90% 미만(12.1%)		
	· 돌봄 상황 지속자의 경제활동 회복 수준 예상 기간 - 본인 : 3년 이상 5년 미만(24.2%) > 1년 이상 3년 미만, 회복 장담 못함(18.2%) - 가구 : 5년 이상, 회복 장담 못함(24.2%) > 3년 이상 5년 미만(18.2%)		
	- 돌봄 상황에서 느낀 어려움 평균 : 병원비 지출(3.79) > 돌봄 자체(3.79) > 돌봄 부담(3.77)		
	- 돌봄을 하면서 느낀 감정 평균 : 불안(3.56) > 우울, 무력(3.49) > 상실, 절망(3.31)		
	돌봄 및 복지 서비스 경험과 수요	- 돌봄 및 복지지원서비스 이용 여부 : 없음(58.4%) > 모름(25.4%) > 있음(16.2%)	
- 돌봄 및 복지지원서비스 미이용 이유 : 정보를 몰라서(72.2%) > 지원자격이 맞지 않아서(18.9%) > 필요를 못 느껴서 (5.6%)			
- 돌봄 및 복지지원서비스 정보 습득 경로 : 온라인 검색(36.6%) > 지인(20.8%) > 지자체 및 공공기관(17.8%)			
- 돌봄서비스 인지도		들어본 적 있음	재가방문·사실이용, 이동지원
		처음 들음	식사지원, 보조기기지원, 가사지원, 돌봄가족지원
- 돌봄서비스 경험 여부		이용경험 있음	재가방문·사실이용, 이동지원, 식사지원, 가사지원, 돌봄가족지원
		이용경험 없음	보조기기지원
- 복지지원서비스 인지도		들어본 적 있음	의료비 지원, 생계비 지원
		처음 들음	주거비 지원, 장학금 지원, 문화체육활동 지원, 교육비 지원, 법률상담 지원
- 복지지원서비스 경험 여부		이용경험 있음	의료비 지원
	이용경험 없음	생계비 지원, 주거비 지원, 장학금 지원, 문화체육활동 지원, 교육비 지원, 법률 상담 지원	
- 돌봄 및 복지 서비스 정보 취득의 난이도 : 어려움(53.9%) > 보통(30.5%) > 매우 어려움(10.4%)			
- 돌봄 및 복지 서비스 정보 취득이 어려운 이유 : 정보가 통합적으로 제공되지 않아서 어려움(65.7%) > 알아볼 시간이 부족함(19.2%) > 검색 자체가 어려움(11.1%)			
- 경제 및 돌봄 측면에서 필요한 지원 우선순위 : 생계지원 > 의료 지원 > 간병지원			
- 삶의 질적 측면에서 필요한 지원 우선순위(전체) : 마음돌봄/심리상담 > 취업지원 > 휴식지원 - 삶의 질적 측면에서 필요한 지원 우선순위(현재 돌봄 중인 자) : 취업지원 > 마음돌봄/심리상담 > 휴식지원			

설문 결과를 집단별로 분석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거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더라도 시사하는 바가 있는 사항으로는 다음의 표와 같다.

<표 V-2> 설문조사 집단 별 차이 검정 주요 결과

구분	내용
1. 돌봄기간	- 집단 : 1. 1년 미만, 2. 1년 이상~3년 미만, 3. 3년 이상
	- 삶의 질적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의 1순위 : 돌봄기간이 3년 미만인 집단은 마음돌봄/심리상담 에 가장 높은 빈도를 보여주었으며, 3년 이상 돌봄 중인 집단은 취업지원 을 필요로 함 - 삶의 질적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의 2순위 : 돌봄기간이 3년 미만인 집단은 마음돌봄/심리상담 에 가장 높은 빈도를 보여주었으며, 3년 이상 돌봄 중인 집단은 진료상담이나 휴식지원 을 필요로 함 ∴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집단은 정서와 관련된 지원을 희망하고, 기간이 긴 집단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 진로 지원이나 오랜 돌봄으로 인한 휴식을 희망함
	- 돌봄 기간이 1년 이상~3년 미만의 집단이 돌봄 1년 미만인 집단에 비해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의 어려움, 돌봄 시간 부족에 따른 어려움 의 평균이 높음 - 돌봄 기간이 1년 이상~3년 미만의 집단이 돌봄 1년 미만인 집단에 비해 분노, 불만, 원망 의 평균이 높음 ∴ 돌봄 기간이 길어질수록 부정적 감정 이 심해지며, 돌봄 자체와 구성원 간의 관계 에도 문제가 더 심해짐
2. 노동 및 금전 지원 정도 (월 돌봄 지출)	- 집단 : 1. 미지출, 2. 30만 원 미만, 3. 30만 원 이상
	- 30만 원 이상 지출하는 집단은 가구의 월 지출액이 '300만 원 이상'에 가장 많음 ∴ 돌봄 지출액이 클수록 본인의 부담도 커짐
	- 지출이 있는 집단은 상담이나 진료상담 을, 지출이 없는 집단은 휴식이나 취업 지원 을 대체로 희망함
3. 출생연도	- 월평균 30만 원 이상 지출하는 집단이 미지출하는 집단에 비해 기초생활 해결의 어려움, 미래계획 설정에 대한 어려움, 분노, 불만, 원망, 고립감, 외로움, 자존감 하락, 자책, 상실, 절망 의 정도가 더 높음
	- 집단 : 1. 1984~1988년생, 2. 1989~1993년생, 3. 1994~1998년생, 4. 1999~2002년생
	- 출생연도가 늦을수록 본인의 월평균 돌봄지출액은 낮음 - 출생연도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음
4. 월 소득	- 집단 : 1. 50만 원 미만, 2. 50만 원 이상~100만 원 미만, 3. 10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 4. 200만 원 이상
	- 본인의 월 소득이 높을수록 경제활동 회복수준도 높음
	- 월 소득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음

2. 제언

정부 정책에서 '청년'이라는 대상층이 주요한 정책의 대상이 된 이래로 무수히 많은 청년에 대한 연구와 정책들이 나오 고 있다. 2020년 가족돌봄청년의 사례가 언론을 통해 알려졌을 때의 충격은, 청년정책이 필요한 청년에게 닿지 않고 있 는 사각지대가 엄연히 존재한다는 사실이었다. 청년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 나가는 중간 지원기관의 역할은 이러한 사 각지대를 해소하고 정책이 필요한 대상에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전달되는 것임에 분명하다. 하여 청년센터에서는 2023년도 청년정책의 연구과제를 가족돌봄청년의 현 실태를 파악하여 정책적인 보완책을 마련해 보고자 하였으며, 이 를 통해 청년정책의 사각지대를 메워나가는 시발점이 되고자 하였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과 별개로 정책의 대상자인 가족돌봄청년의 수가 그리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며, 우리 사회가 그동안 만들어놓은 복지정책의 테두리에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 다. 사회적으로 높은 관심으로 인해 양적인 정책을 펼치기보다는, 대상자 발굴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을 확보하고, 발굴된 대상자에 대한 보다 밀착 높은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 가족돌봄정책이 다른 청년정책과는 차별점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다.

대상자 발굴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병원 등 의료기관을 비롯한 학교, 주민센터 등의 사회 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진료를 위해 보호자 정보를 파악하며, 의료 비 수납 등의 연체나 거절 등의 정보를 통해 어려움을 파악할 수 있다. 주민센터나 학교 등 관련 기관에서 지원이 필요한 대상들을 발견하거나 알게 되었을 경우 관련 기관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있도록 모두 함께 움직여나가야 한다.

대부분의 청년정책은 일정 기간동안 대상자를 모집하고, 지원 자격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 후 예산이나 프로그램을 을 지원하는 과정을 밟는다. 하지만, 가족돌봄청년의 경우 상시적인 접수를 받아야 하고, 자격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한 후 바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또한 가족돌봄청년의 돌봄 그 자체에 대한 지원정책은 복지적 차원에서 정책의 수혜범위를 확장하고 관련예산을 확대 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마련이 될 것으로 파악되나, 삶의 질적 측면에서의 정책은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본 조사 결과 마음돌봄상담, 심리상담, 취업 지원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지역의 상담 기관, 취업 지 원기관에 청년들을 잘 연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족돌봄청년 정책을 비롯한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을 발굴하는 정책은, 필요한 정책과 실행 기관들을 잘 파악하여 정 보를 제공하고 적재적소에 청년들을 연결하여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속적이고 밀착적인 관리를 통해 청년의 삶 이 점차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결자 역할은 기존의 청년정책과 사회서비스 시스템을 보완하면 서 숙련된 인력을 보장하는 것으로도 가능한 부분이라 생각된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미래센터'를 2024년부터 전국의 4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청년미래센터가 가족돌봄청년의 발굴의 중심거점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다 양한 지원기관들로 연결 및 관리하는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아울러 청년미래센터의 정책 방향 성을 수립하고 구체화해 나가는데, 본 연구자료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023 대구 청년의

가족돌봄청년 YOUNG CARER

으로서의 경험에 대한 실태 조사

참고문헌

Young
Carer

참고문헌

광주광역시 서구 구청장실(2023).

3-4-2 가족돌봄으로 학·취업 포기한 청년·청소년 대상 지원.

<https://www.seogu.gwangju.kr/menu.es?mid=a50212000000>에서 2023.11.18. 인출.

광주광역시 서구청(2023.7.15.).

광주광역시 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시행 2023. 7.15.].

광주서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2023.3.15.).

광주 서구 '영케어러'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https://blog.naver.com/seoguswc/223045299679>에서 2023.11.18. 인출.

국무조정실(2023.3.7.).

첫 "청년 삶 실태조사" 결과 발표.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6083>에서 2023.8.7. 인출.

권지성, 좌현숙, 최서경(2023).

가족돌봄청년의 경험에 대한 맥락-패턴 분석 -대리가정위탁 보호아동에서 가족돌봄청년으로의 전환-. 한국가족복지학, 70(2), 5-42

김서영, 이재림(2023).

가족돌봄청년의 돌봄 경험과 가족체계 역동.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8(1), 3-32.

대구광역시(2023.8.16.).

대구광역시, 중장년·가족돌봄청년 일상돌봄 서비스 시작: 보건복지부 '2023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에 서구·달서구 선정.

<https://info.daegu.go.kr/newshome/mtnmain.php?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2&aid=261518>에서 2023.11.18. 인출.

대구광역시 서구(2023.9.1.).

일상돌봄서비스 포스터(서구청).

https://www.dgs.go.kr/dgs/commu/page.php?md=4&mnu_uid=987&msg_no=97739&v_no=에서 2023.11.18. 인출.

동아일보(2022.3.31.).

뇌졸중 부친 숨지게 방치 '간병비극' 20대 청년, 징역 4년 확정.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331/112628301/1>에서 2023.8.7. 인출.

보건복지부(2023.4.26.).

가족돌봄청년, 주당 21.6시간 가족 돌본다.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act=view&list_no=375983에서 2023.8.5. 인출.

보건복지부(2023.7.12.).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수행지역 2차 공모·선정계획.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1010200&bid=0003&act=view&list_no=377232에서 2023.11.18. 인출.

보건복지부(2023.8.14.).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수행 지역 늘어난다.

보건복지부(2023.9.19.).

젊은 한국, 청년 미래를 위한 전략 청년 복지 5대 과제.

서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2023.8.24.).

서구 가족돌봄청(소)년 실태조사 실시.

<http://sgwelfare.kr/notice/134>에서 2023.11.18. 인출.

서울복지포털(2023).

가족돌봄청년.

<https://wis.seoul.go.kr/wfs/sws/youngCarer.do?crtId=PLP01010400>에서 2023.11.18. 인출.

서울시복지재단(2023).

2023 가족돌봄청년 상담 신청서.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_Ea-PjBy8Pq89UFLoArGMaf3biwfKXCQgJoEyl1HYwtBDXQ/viewform에서 2023.11.18. 인출.

서울특별시(2023.7.18.).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2023. 7. 18.].

선미정, 장정은, 김진영(2022).

가족돌봄청년(영 케어러:Young Carer)의 일상생활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미래사회복지연구, 13(3), 33-67.

최윤진, 김고은(2022).

영 케어러(Young Carer)의 돌봄 경험에 대한 탐색. 청소년학연구, 29(11), 155-184.

한소연(2023.4.23.).

'가족돌봄청년 간병살인' 후 2년…대구 확인 2명뿐, 서울은 900명 지원.

<https://news.imaail.com/page/view/2023042010572012532>에서 2023.8.7. 인출.

Edinburgh Young Carers. (2023).

What is a Young Carer?

<https://www.youngcarers.org.uk/about/what-is-a-young-carer>에서 2023.8.5. 인출.

The Department of Education, Victoria. (2021).

Young Carers — Identification and Support.

<https://www2.education.vic.gov.au/pal/young-carers-identification-and-support/policy>에서 2023.11.18. 인출.

The Department of Education, Victoria. (2022).

School Administration Systems.

<https://www2.education.vic.gov.au/pal/school-administration-systems/resources>에서 2023.11.18. 인출.

Young Carers Network. (2023).

Website. <https://youngcarersnetwork.com.au>에서 2023.11.18. 인출.

2023 대구 청년의

가족돌봄청년 YOUNG CARER

으로서의 경험에 대한 실태 조사

부록. 가족돌봄청년 대상 설문지

Young
Carer

대구 청년의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으로서의 경험에 대한 실태파악

· 기간 : 2023년 8월 9일~9월 17일 한 달간 · 대상 : 대구 거주 19~39세 청년

<대구광역시청년센터>는 2023년 의제연구사업으로, '대구 청년의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으로서의 경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은 앞으로의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개인정보는 보호됩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관 대구광역시청년센터(대구광역시 중구 국제보상로541 9층) T. 053-427-1939 E.dgyc1934@daum.net

[1] 가족 돌봄 경험 유무

※ 본 설문에서의 가족 돌봄은 가족 구성원이 정신적·육체적 질환이나 상해·사고·장애 등의 사유로 보살핌이나 간병 등이 필요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 홀로 또는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돌보는 경우 또는 정기적인 금전 지원을 통해 타인으로 하여금 돌보게 하는 등의 행위를 의미함

1. 귀하는 대구에서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청년이 맞습니까?

① 네 ② 아니오→ 설문종료

2. 귀하는 가족 구성원의 정신적·육체적 질환이나 상해·사고·장애 등의 사유로 보살핌이나 간병 등이 필요하여 홀로 또는 함께 돌보거나, 금전적 사례를 통해 타인으로 하여금 돌보게 하는 등의 경험이 있거나 현재 하고 있습니까?

- ① 돌봄을 한 적이 있고 지금은 종료되었다.
 ② 돌봄을 하고 있다.
 ③ 돌봄 경험을 한 적도 없고, 현재도 아니다.→ 설문종료

③에 응답한 경우 대상자가 아니므로 설문을 종료합니다(사례 없음)
 위 질문에서 ①, ②에 응답한 대상자는 계속해서 설문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설문은 약 15분~20분 내외 소요되는 설문입니다. 차분히 질문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돌봄의 형태와 방식

1. 귀하의 가구에서 돌봄이 필요하였거나 필요한 가구원은 누구입(였습)니까? (중복 선택 가능)

① 조부모 ② 외조부모 ③ 배우자의 조부모 ④ 배우자의 외조부모 ⑤ 부모 ⑥ 배우자의 부모
 ⑦ 형제자매 ⑧ 배우자 ⑨ 배우자의 형제자매 ⑩ 자녀 ⑪기타()

2. 귀하의 가구에서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의 건강 상태는 어떠한가(했나)요? (중복 선택 가능)

① 중증질환 ② 정신질환 ③ 장애인 ④ 장기요양 인정 등급 ⑤ 치매 ⑥ 재해·사고 ⑦ 기타()

3. 귀하의 가구에서 가족 돌봄의 주요한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이었습)니까? (중복 선택 가능)

① 부 ② 모 ③ 조부모 ④ 본인 ⑤ 형제자매 ⑥ 배우자 ⑦ 기타

4. 귀하가 가족을 돌보았거나 돌보는 시간은 주당 평균 몇 시간입(이었습)니까?

① 평균 주 시간 ② 없음(간병인 또는 다른 가족이 돌봄) ③ 기타()

5. 귀하가 가족을 돌보았거나 돌보고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과거의 시간 모두 합산해주세요)

① 6개월 미만 ② 1년 미만 ③ 1년 이상~3년 미만 ④ 3년 이상~5년 미만 ⑤ 5년 이상

6. 귀하가 가족 돌봄을 할 때 수행해야 했거나 수행하고 있는 역할은 무엇인가(이었나)요? (중복 선택 가능)

① 직접적인 병간호(간병) ② 금전적인 지원 ③ 집안일 지원(식사, 청소, 세탁 등) ④ 통근 지원(병원 동행 등)
 ⑤ 활동지원(산책, 외출, 운동 도와주기 등) ⑥ 다른 가족 돌보기(형제, 자매, 자녀 돌보기)
 ⑦ 활동 지원은 하지 않음(간병인 통한 케어 또는 다른 가족이 돌봄) ⑧ 기타()

7. 귀하가 가족 돌봄을 위해 월평균 지출하였거나 현재 지출하는 비용과 돌봄 가족을 위해 소요되는 총 비용은 대략 어느 정도 인가요(였나요)?

본인	돌봄 총 비용
① 미지출	① 모름
② 30만 원 미만	② 50만 원 미만
③ 30만 원 이상 50만 원 미만	③ 5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
④ 5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	④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⑤ 100만 원 이상	⑤ 300만 원 이상

8. 돌봄 상황이 종료된 경우 8-1 문항 응답, 계속되고 있는 경우 8-2 및 8-3 문항에 응답해 주세요

8-1. [돌봄 상황 종료] 귀하 및 귀하 가구의 경제활동 수준은 돌봄 상황 대비 현재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본인	돌봄 총 비용
① 10% 이상 30% 미만	① 10% 이상 30% 미만
② 30% 이상 50% 미만	② 30% 이상 50% 미만
③ 50% 이상 70% 미만	③ 50% 이상 70% 미만
④ 70% 이상 90% 미만	④ 70% 이상 90% 미만
⑤ 90% 이상	⑤ 90% 이상
⑥ 기타()	⑥ 기타()

8-2. [돌봄 상황 지속] 귀하 및 귀하 가구의 경제활동 수준은 돌봄 상황 종류 후 어느 정도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본인	돌봄 총 비용
① 10% 이상 30% 미만	① 10% 이상 30% 미만
② 30% 이상 50% 미만	② 30% 이상 50% 미만
③ 50% 이상 70% 미만	③ 50% 이상 70% 미만
④ 70% 이상 90% 미만	④ 70% 이상 90% 미만
⑤ 90% 이상	⑤ 90% 이상
⑥ 기타()	⑥ 기타()

8-3. [돌봄 상황 지속] 귀하 및 귀하 가구의 경제활동 수준은 언제쯤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본인	돌봄 총 비용
① 6개월 미만	① 6개월 미만
② 6개월 이상 1년 미만	② 6개월 이상 1년 미만
③ 1년 이상 3년 미만	③ 1년 이상 3년 미만
④ 3년 이상 5년 미만	④ 3년 이상 5년 미만
⑤ 5년 이상	⑤ 5년 이상
⑥ 회복 장담 못함	⑥ 회복 장담 못함
⑦ 기타()	⑦ 기타()

9. 돌봄 상황에서 느끼는(느꼈던) 귀하의 어려움에 대해 체크해 주세요.

구분	문항	전혀 어렵지 않음	어렵지 않음	보통	어려움	매우 어려움
경제적 측면	1) 돌봄으로 인한 병원비 지출의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2) 돌봄으로 인한 생활비(주거비 등) 지출의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3) 돌봄으로 인한 기초생활 해결의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돌봄 측면	4) 돌봄 대상과의 관계적 어려움(안전문제, 돌봄의 갈등 등)	①	②	③	④	⑤
	5) 가족 구성원 간 관계의 어려움(역할 분담에 따른 갈등 등)	①	②	③	④	⑤
	6) 돌봄 시간 부족에 따른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7) 돌봄 자체의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8) 돌봄으로 인한 부담감에 따른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삶의질 측면	9) 돌봄 대상자 외부활동 지원에 따른 어려움(병원 동행 등)	①	②	③	④	⑤
	10) 돌봄으로 인한 개인 사회활동 영위의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11) 돌봄으로 인한 직장생활/학업 유지의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12) 돌봄으로 인한 취업/진로에 대한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13) 돌봄으로 인한 미래계획 설정에 대한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14) 돌봄으로 인한 개인 건강 상태 악화의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15) 돌봄으로 인한 정신 건강 문제의 어려움(우울, 분노, 힘듦 등)	①	②	③	④	⑤
	16) 돌봄으로 인한 문화·개인 여가 활동 관련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10. 귀하가 돌봄을 하면서 느낀(느꼈던) 감정에 대해 체크해 주세요.

문항	전혀 어렵지 않음	어렵지 않음	보통	어려움	매우 어려움
1) 불안	①	②	③	④	⑤
2) 우울, 무력	①	②	③	④	⑤
3) 분노, 불만, 원망	①	②	③	④	⑤
4) 고립감, 외로움	①	②	③	④	⑤
5) 자존감하락, 자책	①	②	③	④	⑤
6) 상실, 절망	①	②	③	④	⑤

[3] 돌봄 및 복지서비스 경험과 수요

1. 가구원 돌봄 때문에 돌봄 및 복지지원서비스를 이용해 본 적이 있나요?

① 예(→3번 문항 이동) ② 아니오(→2번 문항 이동) ③ 모름(→3번 문항 이동)

2. 돌봄 및 복지지원서비스를 이용해보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응답 후 →4번 문항 이동)

① 필요를 못 느껴서 ② 정보를 몰라서 ③ 지원자격이 맞지 않아서 ④ 기타()

3. 귀하는 돌봄 및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얻고 계신가요?(중복 선택 가능)

① 온라인 검색(복지로 등) ② 지인(친구, 이웃, 친척) ③ 지자체 및 공공기관 ④ 병원
⑤ 복지·종교기관 ⑥ 학교 ⑦ 홍보물·언론 ⑧ 기타()

4. 돌봄서비스 인지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서비스의 인지 수준에 대해 응답해 주세요.

(①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 4-1 문항 응답, 그 외 응답한 경우 5번 문항 이동)

[돌봄서비스 예시입니다. 아래에 정확히 해당하지 않더라도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은 경험에 의해 응답해주시길 바랍니다.]

- 재가방문·시설이용 : 신체활동 지원(씻기, 청결도움 등), 정서지원(의사소통 도움, 말벗 등),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서비스(식사, 청소, 외출 동행 등) 등 방문요양 및 시설요양 서비스
- 이동지원 : 교통약자이동지원서비스 등(장애인 복지 콜택시, 바우처택시 등), 병원동행서비스
- 식사지원 : 반찬지원사업 등
- 보조기지원 : 목발, 휠체어, 보조기, 안경, 돋보기 등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 가사지원 : 가사(식사, 청소, 외출 동행 등) 간병 방문지원사업 등
- 돌봄가족지원 :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급여, 심리지원서비스 등

그 외 : 기초 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지원, 장애 관련 지원 등으로 서비스를 받은 경험 포함

문항	알고 있다	들어본 적은 있다	처음 듣는다
재가방문·시설이용	①	②	③
이동지원	①	②	③
식사지원	①	②	③
보조기지원	①	②	③
가사지원	①	②	③
돌봄가족지원	①	②	③
기타	()	()	()

4-1. 돌봄서비스 이용 경험 및 만족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 가구에서 이용해 본 서비스가 있다면 체크해 주세요.

구분	1) 이용경험	2) 만족도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재가방문 시설이용	① 이용한 적 있음(→만족도 응답) ② 없음(→5번 문항 이동) ③ 이용경험 모름(→5번 문항 이동)	①	②	③	④	⑤
이동지원	① 이용한 적 있음(→만족도 응답) ② 없음(→5번 문항 이동) ③ 이용경험 모름(→5번 문항 이동)	①	②	③	④	⑤
식사지원	① 이용한 적 있음(→만족도 응답) ② 없음(→5번 문항 이동) ③ 이용경험 모름(→5번 문항 이동)	①	②	③	④	⑤
보조기기지원	① 이용한 적 있음(→만족도 응답) ② 없음(→5번 문항 이동) ③ 이용경험 모름(→5번 문항 이동)	①	②	③	④	⑤
가사지원	① 이용한 적 있음(→만족도 응답) ② 없음(→5번 문항 이동) ③ 이용경험 모름(→5번 문항 이동)	①	②	③	④	⑤
돌봄가족지원	① 이용한 적 있음(→만족도 응답) ② 없음(→5번 문항 이동) ③ 이용경험 모름(→5번 문항 이동)	①	②	③	④	⑤
기타	()					

5. 복지지원서비스 인지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서비스의 인지 수준에 대해 응답해 주세요.

(①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 5-1 문항 응답, 그 외 응답한 경우 6번 문항 이동)

[복지지원서비스 예시입니다. 아래에 정확히 해당하지 않더라도 유사 복지지원서비스를 받은 경험에 의해 응답해주시길 바랍니다.]

- 의료비 지원 :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재난적 의료비 지원, 긴급복지지원사업 등
- 생계비 지원 : 생활 위기 지원금(의료비, 생계비, 간호비 등), 긴급복지지원사업 등
- 주거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사업 등
- 장학금 지원 : 국가장학금, 민간 장학금 등
- 문화체육활동 지원 : 자기돌봄 지원금(자기 계발비, 문화지원비 등), 문화누리카드, 스포츠바우처 등
- 교육비 지원 : 초·중·고 교육비지원, 긴급복지지원사업 등
- 법률상담 지원 : 국민콜 110 등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법률상담 지원 서비스

그 외 : 기초 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지원, 장애 관련 지원 등으로 서비스를 받은 경험 포함

문항	알고 있다	들어본 적은 있다	처음 듣는다
의료비 지원	①	②	③
생계비 지원	①	②	③
주거비 지원	①	②	③
장학금 지원	①	②	③
문화체육활동 지원	①	②	③
교육비 지원	①	②	③
법률상담 지원	①	②	③
기타	()		

5-1. 복지지원서비스 이용 경험 및 만족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 가구에서 이용해 본 서비스가 있다면 체크해 주세요.

구분	1) 이용경험	2) 만족도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의료비 지원	① 이용한 적 있음(→만족도 응답) ② 없음(→6번 문항 이동) ③ 이용경험 모름(→6번 문항 이동)	①	②	③	④	⑤
생계비 지원	① 이용한 적 있음(→만족도 응답) ② 없음(→6번 문항 이동) ③ 이용경험 모름(→6번 문항 이동)	①	②	③	④	⑤
주거비 지원	① 이용한 적 있음(→만족도 응답) ② 없음(→6번 문항 이동) ③ 이용경험 모름(→6번 문항 이동)	①	②	③	④	⑤
장학금 지원	① 이용한 적 있음(→만족도 응답) ② 없음(→6번 문항 이동) ③ 이용경험 모름(→6번 문항 이동)	①	②	③	④	⑤
문화체육활동 지원	① 이용한 적 있음(→만족도 응답) ② 없음(→6번 문항 이동) ③ 이용경험 모름(→6번 문항 이동)	①	②	③	④	⑤
교육비 지원	① 이용한 적 있음(→만족도 응답) ② 없음(→6번 문항 이동) ③ 이용경험 모름(→6번 문항 이동)	①	②	③	④	⑤
법률상담 지원	① 이용한 적 있음(→만족도 응답) ② 없음(→6번 문항 이동) ③ 이용경험 모름(→6번 문항 이동)	①	②	③	④	⑤
기타	()					

6. 돌봄 및 복지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는 과정이 귀하에게는 어떻게 느껴지시(셨)나요?

- ① 매우 어려움(→7번 문항 이동) ② 어려움(→7번 문항 이동) ③ 보통(→8번 문항 이동)
④ 쉬움(→8번 문항 이동) ⑤ 매우 쉬움(→8번 문항 이동)

7. 6번 문항에서 돌봄 및 복지서비스에 관한 정보 취득이 매우 어려움 / 어려움이라고 답하신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① 검색 자체가 어려움 ② 정보가 통합적으로 제공되지 않아서 어려움 ③ 알아볼 시간이 부족함 ④ 기타

8. 귀하가 가족을 돌보는데 있어 경제 및 돌봄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 정책은 무엇인가요?

1순위	2순위	3순위

- ① 생계지원 ② 의료지원 ③ 간병지원 ④ 간병교육지원 ⑤ 이동지원 ⑥ 가사지원 ⑦ 법률지원 ⑧ 각종 지원정책 정보지원 ⑨ 기타()

9. 귀하가 가족을 돌보는데 있어 본인 삶의 질적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 정책은 무엇인가요?

1순위	2순위	3순위

- ① 문화여가활동 ② 마음돌봄/심리상담 ③ 진로상담/교육 ④ 취업지원 ⑤ 모임지원(커뮤니티활동) ⑥ 휴식지원 ⑦ 각종 지원정책 정보지원 ⑧ 기타()

[4] 청년정책 경험

1. 귀하는 대구시의 청년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인 대구광역시청년센터를 알고 계신가요?

- ① 예(→2번 문항 이동) ② 아니오(→3번 문항 이동)

2. 귀하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대구광역시청년센터를 알게 되셨나요?

①	직접 검색(청년정책 등 키워드로)	②	청년커뮤니티포털 '짚프'	③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④	유튜브채널 보라그래TV	⑤	TV, 라디오 등 언론매체	⑥	가족, 친구 등 추천
⑦	현수막, 전광판 등 거리홍보물	⑧	청년주간, 정책설명회 등 행사	⑨	안내문 / 소식지 등
⑩	기타 ()				

3. 대구시 청년정책 인지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정책의 인지 수준에 대해 응답해 주세요.

(①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 3-1 문항 응답, 그 외 응답한 경우 p10. [5] 기본정보 이동)

구분	알고 있다	들어본 적은 있다	처음 듣는다
청년상담소 상담(사회진입활동지원금)	①	②	③
청년희망적금	①	②	③
청년도전지원사업	①	②	③
진로탐색학교 N길, 탄길, 내일학교	①	②	③
커뮤니티지원, 동천썰롱, 공동체지원	①	②	③
자소서 첨삭, 면접비, 멘토링 등	①	②	③
직접작성()	①	②	③

3-1. 대구시 청년정책 이용 경험 및 만족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가 이용해 본 서비스가 있다면 체크해 주세요.

구분	1) 이용경험	2) 만족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청년상담소 상담 (사회진입활동지원금)	① 이용한 적 있음(→만족도 응답) ② 없음(→5번 문항 이동) ③ 이용경험 모름(→5번 문항 이동)	①	②	③	④	⑤
청년희망적금	① 이용한 적 있음(→만족도 응답) ② 없음(→5번 문항 이동) ③ 이용경험 모름(→5번 문항 이동)	①	②	③	④	⑤
청년도전지원사업	① 이용한 적 있음(→만족도 응답) ② 없음(→5번 문항 이동) ③ 이용경험 모름(→5번 문항 이동)	①	②	③	④	⑤
진로탐색학교 N길, 탄길, 내일학교	① 이용한 적 있음(→만족도 응답) ② 없음(→5번 문항 이동) ③ 이용경험 모름(→5번 문항 이동)	①	②	③	④	⑤
커뮤니티지원, 동천썰롱, 공동체지원	① 이용한 적 있음(→만족도 응답) ② 없음(→5번 문항 이동) ③ 이용경험 모름(→5번 문항 이동)	①	②	③	④	⑤
자소서 첨삭, 면접비, 멘토링 등	① 이용한 적 있음(→만족도 응답) ② 없음(→5번 문항 이동) ③ 이용경험 모름(→5번 문항 이동)	①	②	③	④	⑤
직접작성()	① 이용한 적 있음(→만족도 응답) ② 없음(→5번 문항 이동) ③ 이용경험 모름(→5번 문항 이동)	①	②	③	④	⑤

[5] 기본정보

1. 귀하의 성별은?

- ① 여자 ② 남자

2. 귀하의 출생년도는?

--	--	--	--

3. 귀하의 최종 학력은?

- ① 고졸 이하 ② 대학 재학 중 ③ 대학 중퇴 ④ (초)대학 졸업 ⑤ 대학원 재학 중 ⑥ 대학원 졸업(석·박사) ⑦ 기타()

4. 귀하의 현재 경제활동 상태는 어떠합니까?

- ① 경제 활동 중(→4-1번 문항 이동) ② 학생 ③ 취업 준비 중 ④ 창업 준비 중 ⑤ 가사/육아 중 ⑥ 구직활동 없이 쉬는 중 ⑦ 기타()

4-1. 현재 귀하의 근로 형태는 어떠합니까? ()

임금 근로자	① 상용근로자	계약기간 1년 이상 정해진 채용절차 따라 입사
	② 임시근로자	고용계약기간 1개월 이상 ~ 1년 미만
	③ 일용근로자	고용계약기간 1개월 미만, 1일 단위 고용
비임금 근로자	④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고용주)	유급고용원을 채용해 자영업하는 고용주
	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원 없이 혼자 혹은 무급가족과 함께 자영업하는 자
	⑥ 무급가족종사자	급여없이 가족/친척 일을 도와 주당 18시간이상 일 한 자
기타	⑦ 기타 종사자	프리랜서, 배달,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5. 귀하는 어느 구(군)에 거주하십니까?

- ① 중구 ② 동구 ③ 서구 ④ 남구 ⑤ 북구 ⑥ 수성구 ⑦ 달서구 ⑧ 달성군 ⑨ 군위군 ⑩ 기타()

6. 귀하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 구성원을 모두 체크해 주세요 (중복 선택 가능)

- ① 없음(1인가구) ② 부 ③ 모 ④ 조모 ⑤ 조부 ⑥ 형제·자매 ⑦ 배우자 ⑧ 배우자의 부모 ⑨ 배우자의 조부모 ⑩ 배우자의 형제자매 ⑪ 자녀 ⑫ 기타()

7. 가족 구성원 중 본인 외에 함께 돌봄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 ① 본인 제외 ()명 ② 없음

8. 귀하의 주거 형태는 어떻게 됩니까?

- ① 원룸/고시원 ② 오피스텔 ③ 다가구/단독주택 ④ 아파트 ⑤ 기숙사/단체숙소 ⑥ 기타()

9. 귀하 본인의 월 소득(용돈 등을 포함한 총 소득)은 대략 어느 정도인가요?

- ① 50만 원 미만 ② 50만 원 이상~100만 원 미만 ③ 10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 ④ 2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 ⑤ 300만 원 이상~500만 원 미만 ⑥ 500만 원 이상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에 관한 보다 깊이 있는 연구를 위해,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 중 일부 청년들을 대상으로 향후 심층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만약 심층 인터뷰 대상으로 선정이 된다면, 인터뷰에 참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	참여할 의향이 있다.	②	참여할 의향이 없다.
---	-------------	---	-------------

- 인터뷰 일정 : 2023년 8월~9월 중, 2시간 정도
 - 인터뷰 기관 :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 소정의 사례비(10만 원 정도)를 드립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정보주체의 동의절차를 준수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후 수집된 정보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외의 용도로는 절대 이용, 제공되지 않습니다.

개인(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은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의 삭제·처리 정지 요구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및 제24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함)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개인정보처리자) : 대구광역시청년센터,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심층 인터뷰 동의자만)
 - 나. 개인정보 수집 목적 : 상품권 제공 및 인터뷰 진행 시 사용
 - 다. 개인정보의 수집 항목 : 휴대폰 번호
 - 라.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3년
- 본인은 대구광역시청년센터,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심층 인터뷰 동의자만)에 위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조사에 참여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본인은 위 1~2호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의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고 서명합니다.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상품권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023년 _____ 월 _____ 일

성명 _____ (서명)

※ 휴대전화 번호는 상품권 전달(20,000원 상당) 및 심층인터뷰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분에게 연락하는 용도 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상품권은 답변이 불성실하거나 유효 응답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지급은 9월 22일(금) 이후 일괄 지급될 예정입니다.